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조 성 기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맥락적 고찰을 통한 효과적인
다문화 음악수업 설계

- 중학교 1학년 2007개정 교과서에 나타난
아시아 민요를 중심으로 -

2013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은 정

맥락적 고찰을 통한 효과적인
다문화 음악수업 설계

- 중학교 1학년 2007개정 교과서에 나타난
아시아 민요를 중심으로 -

조성기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2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은 정

인 준 서

김은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우리 사회의 급변하는 상황은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다문화 교육의 방법으로 음악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효과적인 다문화 음악교육을 위한 방법으로 음악과 관련된 맥락적 요소들을 모두 계획적으로 다룸으로써 각 나라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보다 잘 표현하도록 하는 교육방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다문화 교육과 맥락적 교육을 살펴봄으로써 음악교육에서 악곡에 대한 표면적인 음악 학습 활동 보다는 악곡에 대한 역사와 문화적 맥락의 이해를 통해 음악적 표현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2007 개정 중학교 1학년의 16종 교과서에 나타난 아시아 지역의 민요를 분석한 결과 중국, 일본,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많이 거주하는 외국인인 중국, 베트남, 일본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문헌의 고찰과 분석을 토대로 맥락적 고찰을 통한 다문화 음악수업을 위해 Background, Middleground, Foreground의 구성요소에 따라 모형을 설계하였으며, 이 모형을 중국과 일본, 베트남의 민요에 대해 적용해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해 보았다. 음악적 활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Background와 Middleground를 살펴봄으로써 지리적, 종교적, 음악적 특징과 생활문화 등의 각 나라의 문화를 먼저 이해하고 Foreground에 해당하는 각 나라의 민요의 내용과 사용된 음계, 리듬 등의 음악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러한 맥락적인 요소를 고려한 다문화 음악수업을 통해 각 나라의 음악에는 각 나라의 생활모습 및 문화적, 역사적 배경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맥락을 이루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단순한 음악 활동이 아닌 이들 맥락적 요소들을

통해 악곡을 정확하게 효율적이며 매력적으로 이해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음악을 둘러싼 다양한 문화를 균형 있게 바라보고, 객체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3. 연구의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4
1. 다문화 교육	4
가. 다문화주의	4
나. 다문화교육	5
다. 다문화 음악교육	10
2. 맥락적 교육	14
가. 맥락적 관점의 개념	14
나. 맥락적 관점의 필요성	16
다. 맥락적 관점과 음악교육	18
라. 맥락적 관점과 전통문화교육	19
3. 선행연구 분석	22
III. 2007개정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 분석	25
1. 2007 개정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의 다문화 음악	25
2. 아시아민요 분석	28
가. 국가별 분석	28
나. 곡목별 분석	29

다. 단원별 분석	32
IV. 맥락적 고찰을 통한 다문화 음악수업 설계 및 적용	36
1. 설계중점 및 구성요소	36
2. 다문화 음악 수업을 위한 모형설계	38
3. 맥락적 고찰을 통한 다문화 음악수업 모형의 적용	40
가. 일본 민요 : 벚꽃	40
나. 베트남 민요 : 리 디아 빠임 보	57
다. 중국민요 : 모리화	66
VI. 결론 및 제언	76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 표 I-1 >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별 현황	9
< 표 I-2 > 부모 출신국별 현황	10
< 표 III-1 >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차이점	25
< 표 III-2 > 2007 개정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에서 제시된 다문화적 악곡의 대륙별 분포	26
< 표 III-3 > 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1학년 16종 교과서 목록 ...	27
< 표 III-4 > 아시아 민요 국가별 분석	28
< 표 III-5 > 아시아 민요 곡목별 분석	29
< 표 III-6 > 아시아 민요 단원별 분석	32
< 표 IV-1 > 맥락적 고찰을 통한 다문화 음악수업 모형	38

그 립 목 차

[그림 IV-1] 다문화음악교육 설계구성요소	36
[그림 IV-2] 전통문화 층위 구조의 적용	37
[그림 IV-3] 일본의 벚꽃	51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한국 사회는 세계적 변화에 따라 이주 노동자의 유입과 국제결혼이 빈번해지면서 다문화 가정 및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급격한 증가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외국인들로 인해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단일민족’ 사회가 아닌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혼재하는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급변하는 상황은 한국 사회 내에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연구 등 학문적 노력이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도 ‘세계음악에 대한 이해를 증시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다문화 교육의 내용이 더욱 폭넓게 자리매김 하였다.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세계의 문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문화에는 다양한 예술이 포함되기 때문에 예술로서 다양한 세계의 음악에 대한 교육은 다문화를 교육시키기에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 다문화 음악교육은 삶에 있어서 다양한 문화의 폭을 형성하게 하고, 음악문화 수용의 바른 방향을 제시해 준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민족음악과 문화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여 정체성 확립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다양한 음악적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창의성을 발달시켜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문화 이해를 위한 다문화 교육의 방법으로 음악교육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다문화 음악교육의 중요성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다문화 음악교육에 대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효과적인 다문화 음악교육 방법의 부재로 본질적이고 충실한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 음악교육 연구자들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면 개념이해를 위한 내용으로는 가사의 의미나 악곡의 배경 설명에 해당하는 ‘일반적 특징’을 아는 것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감상활동과 악기이해’의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청·감각에 의한 구체적인 지도 내용보다는, 단순한 발췌 악보 또는 악기의 사진을 제시하는 정도이다. 또한 ‘문화 맥락적 내용’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리적 특징이 설명되고 있으며, 그 외에 축제, 국화, 국기, 전통의상 등을 살펴보는 정도였다.

다문화 음악교육은 다양한 나라의 음악과 그 음악적 요소들 그리고 표현방법, 음악과 관련된 사회·맥락적 요소들을 모두 계획적으로 다룸으로써 각 나라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보다 잘 표현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지도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며, 지도 내용에 있어서도 다문화적 관점이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순한 감상과 가창활동에서 나아가 문화적, 역사적 배경과 함께 악곡을 이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는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이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에서는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이러한 문화의 총체적 접근 방법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음악교육에서도 음악문화를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해 문화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음악교육에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루는, 즉 문화의 맥락적인 요소들을 고려한 다문화 음악교육 방법에 대한 모형을 연구하여 제시하고 이 모형을 적용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다문화의 시대적 요구와 맥락에 따른 다문화 음악교육의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과 방법을 갖는다.

첫째, 다문화 음악교육과 맥락적 음악교육에 대한 개념과 내용을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한다.

둘째, 음악과 교육과정에 나타나는 다문화 음악교육의 요소 및 내용을 분석한다.

셋째, 다문화 음악교육 관련 선행연구 및 교과서를 분석하여 본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이상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의 맥락적 요소들을 고려한 다문화 음악교육 방법을 위한 모형을 설계한다.

다섯째, 중학교 교과서의 아시아민요 3곡을 선정하여 본 연구에서 설계한 모형을 적용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가창, 기악, 창작, 감상 등의 음악 표현 활동 중 가창 영역의 활동에 제한된다.

둘째, 연구의 범위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1학년의 음악 교과서 16종에 나오는 아시아 민요로 제한된다.

셋째, 본 연구는 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적용한 교수·학습 과정안의 개발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현장 실행을 통해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교육

가. 다문화주의

어느 사회나 사회적 집단 안에는 특정한 문화가 존재한다. 문화란 특정한 삶의 표현 방식으로 삶의 조건이 비슷하면 문화의 동질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규모가 작고 내부 이동이 적으며, 외부와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고, 변화가 느린 사회에서는 일정한 문화가 오래 지속되는 반면 규모가 크고, 내부 이동이 잦고, 외부와의 교류가 활발하며, 변화가 빠른 사회에서는 여러 문화가 복잡하게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¹⁾

세계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문화의 다양한 교류와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높아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국가, 종교, 민족 등의 타문화의 갈등이 발생되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철학적 해결 방안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다문화주의이다.

1960년대 말 미국의 인권 운동을 시작으로 한 다문화주의는 1970년대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의 전형적인 다인종 국가들에서 대두되어 다양한 문화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초기의 다문화주의라는 용어는 학교에서의 인종주의에 반격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으로 개념화되었으나, 점차 인종, 민족, 성별, 사회계층, 언어와 장애문제와 관련된 학교개혁 운동으로 확장되었다.

다문화주의는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을 사회를 이루는 기본적인 원리로 받아들이고 같은 사회 속에서 여러 문화의 공존을 인정하며, 소수문화와 열등문화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상호 존중과 문화적 차이에

1) 조용환(2008). 다문화 사회의 이해: 다문화 교육의 현실과 전망.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 이해교육원 p.231

대한 관용을 중시하는 다문화주의는 평등과 자유의 개념이 교육에 의하여 강조 될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문화 교육과 연결된다.

서로 다른 문화가 섞이면 모든 문화를 공평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특정한 인종의 문화가 필연적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²⁾ 문화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창조의 기회를 창출하여야 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나. 다문화교육

1) 다문화교육의 개념

현재 우리사회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양한 문화 속에 살게 되었다. 한 사회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것은 상이한 가치판단의 정신세계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위해, 사소한 차이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여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은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일련의 교육적 과정을 통해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차별을 해결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 전략이다.

다문화 교육의 목표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बैं크스(James. A. Banks)는 다문화교육을 다음 세 가지 요소로 개념화 하였다.

① 주제 또는 개념으로서의 다문화교육 : 모든 학생들은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② 교육개혁운동으로서의 다문화교육 : 학교교육이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운동이다.

2) 권덕원(2000). 다문화주의 음악교육론과 국악교육, 「음악과 문화」 제2호, p. 51

③ 다문화교육은 지속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미국의 교육학자 모리슨(G. S. Morrison)은 다문화 교육을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과 이해, 그 이상을 다루는 교육으로 보았으며 ‘인종이나 성, 사회계층, 언어 및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인류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교류하고 협력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하였다.

셋째, 장인실은 다문화 교육을 “인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집단에 속해 있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상호 이해와 평등 관계를 중시하고 민족, 사회적 지위, 성별, 종교, 이념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집단의 문화를 동등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학생들이 자신이 속해 있지 않은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지식, 태도, 가치교육을 제공하는 것”³⁾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다문화교육에 대한 정의와 포함하는 의미가 서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문화를 이해·존중하고, 편견을 줄이는 관용적 태도와 다문화적 사고를 기르는 교육을 제공하고 구성원은 문화적 소속과 관계없이 학교에서 교육적 평등을 경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2)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과교육

사회 구성주의자 비고츠키(Vygotsky)에 따르면, 아동 개개인의 사회적 변화는 사회와 문화에 기초한다. 즉, 아동은 문화를 매개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1세 이전에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지 못했던 상태로부터 점차 자기 자신과 분리된 타인의 존재를 이해하게 되고 학령기가 되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특성과 정체성, 삶의 역사와 미래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아동의 사회인지는 그들의 삶의 세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상호작용이 가능한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면서 미래와 같은 추상적인 세계로까지 확장하여 발달하게 된다. 다문화 교육학자인 뱅크

3) 장인실(2006). “미국 다문화 교육과 교육과정”, 교육과정연구 제24권 제 4호. p.28, 재인용

스는 일찍이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의 차이를 포함하는 민족성 태도 발달을 설명하였다.

장영희는 Banks의 민족성 태도 발달을 근거로 하고, 인종 및 민족성 발달과 관련된 많은 연구를 종합하여 6단계의 문화 발달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즉, 첫째, 문화적·심리적 거부 단계: 자신의 인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나 믿음을 내면화하는 시기, 둘째, 문화적 고립기: 인종적 배타주의의 단계, 셋째, 문화적 정체감의 명료화 단계: 자신의 인종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 넷째, 이중문화 단계: 둘 이상의 문화에서 요구하는 가치, 태도, 지식, 기술 습득, 다섯째, 다문화 단계: 다문화 주의와 반영적 국가관의 형성 단계, 여섯째, 세계화의 단계: 긍정적인 세계적 동질성 습득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가 지속되면서 구성원들은 새로운 미래 사회를 창조해 나아가야 함을 제안하였다.⁴⁾ 즉, 한 개인 내부에서의 문화에 대한 태도 발달은 한 개인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국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사회에 대한 개념이 확대되면서 문화에 대한 태도도 다문화와 세계 문화, 나아가 미래 사회 문화로 넓혀 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귀우(1999)는 이러한 입장의 다문화 교육을 자유주의적 혹은 다원주의적 다문화 주의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⁵⁾ 이와는 달리, 비판적 다문화 주의(critical multiculturalism)는 문화에 대한 정체성 형성과 문화적 다양성 이해와 존중을 길러주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믿는다.

비판적 다문화 주의를 평등과 정의의 관계를 억누르면서 억압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도모하여, 다문화적 상황에 바람직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따라서 비판적 다문화 주의 관점에서의 다문화 교육은 단순히 차이를 인정하거나 격려해 주고 편견을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인종주의와 불

4) 장영희(1997). 유아를 위한 다문화 교육의 개념 및 교수방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 성신연구논문집, 제35집, p.295-314

5) 이귀우(1999). "비판적 다문화 주의와 문학연구". 인문논총 6집,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59-75, 재인용

의를 지적하고 적극 대응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맥락에서 슬리터(Sleeter, 2008)는 한국의 다문화 교육 과정을 위한 그의 제안에서 다양성과 공평·정의의 세로축과 국내적 입장과 국제적 입장의 가로 축을 격자로 하는 4개 영역의 교육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내적 다양성과 국제적 다양성, 국내적 공평·정의로 구분하여 각각의 교육과정이 가정하는 바와 교수전략, 그리고 관련 집단의 득실에 대한 담론을 펼쳤다. 이와 같이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의 동향을 살펴보면 어느 한 관점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온전히 한 관점을 추구하는 실천적 방안을 제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다문화 교육을 위한 대개의 교수·학습 프로그램들은 기울기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대부분 이들의 관점을 절충한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오은순 외(2007)의 연구에서도 다문화 가정 학생의 적응, 문화적 상대성과 다양성, 문화적 편견 해소, 평등 사회 도모, 미래 사회를 위한 새 문화 창조를 다문화 교육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으로 상정한 바 있다.

“다문화 교육의 중요한 가치(value) 혹은 궁극적 목적들은 위의 연구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그 수준과 범위에 있어 매우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상의 연구들이 제안하고 있는 다양한 수준의 가치들은 앞서 논의한 아동의 사회 인지 발달과 문화에 대한 태도 발달, 다문화 교육에 대한 비판적 다문화주의 관점, 다문화 교육 관련 선행 연구 등을 고려해 볼 때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즉, 학생 자신의 정체성, 학생이 속한 크고 작은 사회에서의 다양성, 평등, 정의, 세계 시민성, 그리고 새로운 미래 사회를 위한 창조성이 그것이다.”⁶⁾

3)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다문화주의 또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에 들어서 크게 증가하였다. 학교 교과과정에도 국제 이해교육을 통하여 세계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배양하고, 외국의 역사적, 지리적, 자연적 환경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문화 교육 중에서도 본 연구의 중점이 될 아시아 음악교육이

6) 오은순(2008).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연구(II) p. 22-23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에 급증하는 아시아 외국인의 인구수와 그로 인한 인종 및 문화의 다양성과 관련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의 이민, 결혼 등으로 아시아를 비롯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감에 따라 우리나라의 교육에서도 여러 나라의 다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문화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나라는 대부분 아시아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다누리에서 제시한 결혼 이민자 자녀의 현황⁷⁾은 <표 I-1>과 같다.

< 표 I-1>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별 현황(11년 1월)

구분	계	만6세이하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학생수	151,154명	93,537명	37,590명	12,392명	7,635명
비율	100%	61.9%	24.9%	8.2%	5.1%

다음은 2011년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⁸⁾으로 <표 I-2>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 하고 있는 외국인의 나라는 동북아와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시아의 음악교육을 바탕으로 한 음악수업을 통해 아시아의 문화와 지리적 환경 음악 등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다양성을 이해하며, 이를 통해 문화적으로 넓은 안목을 길러 줄 수 있는 아시아 음악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다누리 <http://www.liveinkorea.kr/> (검색일자 : 2012. 11. 15)

8) 다누리 <http://www.liveinkorea.kr/>자료 : 행안부,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12.1 (검색일자 : 2012. 11.15)

<표 I-2> 부모 출신국별 현황 (11년 1월)

구분		합계
합계		151,154
동북아	소계	85,989
	중국	34,852
	중국(한국계)	33,186
	대만	1,191
	일본	14,510
	몽골	2,250
동남아	소계	54,974
	베트남	34,256
	필리핀	13,937
	태국	2,082
	인도네시아	576
	기타	4,123
남부아시아		1,783
중앙아시아		2,414
미국		1,207
러시아		1,090
기타		3,697

다. 다문화 음악교육

1) 다문화 음악교육의 개념

다문화 교육이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다문화 음악교육은 음악적인 내용을 넘어서는 더 폭넓은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음악이 포괄하고 있는 사회와 문화, 그리고 다양한 민족의 역사와 문제점까지 포함해야 한다. 이에 근거하여 다문화 음악교육이란 다양한 문화적 차이와 경험, 성별, 언어, 종교, 사회적 계층 등의 배경을 가진 음악이 교육과정을 통해 공평한 교육기회로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정리된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의 개념을 알아보려고 한다.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의 개념을 정의한 권덕원(2010)에 의하면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을 음악의 범위는 물론, 그 넓은 개념의 음악이 포괄하는 사회, 그리고 다양한 사회들 속에 속해 있는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의 문제까지도 포괄

적으로 다루는 것이라고 하였다.⁹⁾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의 개념을 정리한 외국의 학자 캠벨(P. S. Campbell)과 엘리엇(D. J. Elliot)의 설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캠벨은 다문화 음악교육이 인종, 혹은 민족의 기원, 차이, 지위, 성, 종교, 생활방식, 소외계층으로 구별되는 집단의 음악에 대한 연구라고 주장하며, 다문화 음악교육을 세 단계로 정의하고 있다. 첫 번째, 세계 음악전통을 광범위하게 포괄할 수 있는 대표성을 띤 음악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 두 번째, 선정된 음악문화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세 번째, 음악적 기능과 이해를 위해 다양한 학습양식을 통한 다중적 교수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⁰⁾

엘리엇은 각각의 전통과 문화적 맥락을 지니고 있는 음악들은 서로 간에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고, 어떤 음악이 다른 음악보다 더 가치 있다거나 중요하다는 결론도 있을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또 인종이나 종교와 같은 문화적 경계를 기초로 음악을 선별하여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음악들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음악의 사회적 역할이나 가치에 대하여 학습하고, 문화적 관점에서 음악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¹¹⁾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정의된 개념을 보면, 다문화 음악교육이란 민족, 종교, 계층, 성, 이념 등 다양한 사회집단이 창출하고 향유하는 음악을 교수 내용에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음악의 바탕이 되는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음악과 사회·문화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9) 권덕원(2010). 「다문화주의 음악교육론과 국악교육」, 음악과 문화(세계음악학회) 2, p.51

10) 모희선(2009). “중등음악교육의 다문화 음악교육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p.17, 재인용

11) 김지현(2008).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주의와 교육”. 철학연구 106, p.44, 재인용

2) 다문화 음악교육의 교육적 가치

민경훈은 세계화에 바탕을 둔 다문화적 음악교육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 일반 교육적 접근, 문화적 접근, 역사 및 사회적 접근, 정치적 접근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¹²⁾

첫째, 일반 교육적 접근은 감정이입의 능력과 관용, 평화, 협동심, 연대성 등을 추구하는 사회교육적인 학습에 속하는 것이다. 감정이입의 능력이란 소수 집단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처지에 관계하는 것으로서, 이민자들 또는 제3세계 학생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따라서 다문화 음악교육은 각 개인 스스로가 관용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과 처지가 다른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에 관계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 음악교육의 문화적 접근은 음악문화와 생활문화의 이해에 가치를 둔다. 그러나 실용위주의 교육을 중시하는 한국 음악수업의 경우, 사회적·문화적 접근이 등한시되어 왔고 이제 이러한 음악교육은 각 나라간의 문화적 상이함을 인정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문화적 측면에서의 다문화 음악교육은 각 문화의 낯선 생활방식과 생활태도를 존중하는 관용적 태도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자국의 음악이 고유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다문화 음악교육의 학습에서는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고 평가하는 가운데 다른 나라 음악문화도 소중하다는 것을 느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문화 음악교육은 자기 민족중심적인 가치평가를 자제하고, 상대를 인정하는 민주적 사고의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문화적 차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다문화 음악교육은 그 나라의 역사적·사회적 현상을 이해하는데 목표를 둘 수 있다. 이와 같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민요를 단순히 음악 활동의 객체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주체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다문화적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학교의 음악 수업

12) 민경훈(2005). 상호 문화적 음악교육의 의미와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 음악과 민족, 제28호, p.438-443

은 다른 민족의 민요를 대할 때, 부르는 대상 혹은 듣는 대상으로서의 단순한 객체로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다문화 음악교육은 이 민요들이 역사적·사회적 주체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음악수업에서 다루어지는 세계의 민요들은 생활환경과 방식은 물론, 실제 음악적 체험 및 춤과 연관되어 다루어져야 한다.

넷째, 다문화 음악교육은 인종과 문화적 차별의 극복을 위해 정치적 교육을 포함한다. 상호간의 문화를 존중하는 다문화 음악교육에서 정치적인 요소는 배제될 수 없는 사항이다. 다양한 문화와 생활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화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해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다문화 교육 또한 인종차별의 극복과 화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다문화 음악교육은 교육적, 문화적, 역사 및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따라서 다문화 음악교육의 궁극적 가치는 이와 같은 네 가지 접근을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포용성을 기르고 문화적, 인종적 차별을 극복하여 인류애를 실현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2. 맥락적 교육

문화와 예술에서 본질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흐름인 맥락에 대해 알고 넘어가야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곧 그 시대의 사회, 경제, 정치, 종교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각 시대마다 표현되는 감정이나 느낌과 사상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맥락적인 요소에 따라 각 나라마다 예술작품과 문학 작품의 요소들이 변화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술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맥락적인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

가. 맥락적 관점의 개념

맥락(Context)의 개념은 미학이론과 일반 디자인분야, 언어학과 문예학 그리고 건축-도시 분야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개념이다. ‘맥락(Context)’은 그 어원이 Con(=com, together)의 ‘같다’라는 뜻과 라틴어에서 온 textere의 ‘(천이나 직물 따위를) 짜다’라는 뜻의 합성어로서, 그 해석적 의미로는 문맥, 맥락, 글의 전후 관계, 경위, 배경 등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일련의 연속성을 의미한다. Larousse 백과사전에 의하면 첫째, 하나의 언설의 배경에 해당되는 자연적·사회적·문화적 조건의 총체. 둘째, 하나의 사건이나 행위를 일으키는 환경들의 총체. 셋째, 하나의 기술 요소에 내재함으로써 의미를 갖게 되는 텍스트(text)의 총체로 정의하고 있다.¹³⁾

미학이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맥락의 개념을 보면, 예술작품 그 자체의 감상-보거나 듣거나, 읽는 것-으로만 평가되는 고립주의(Isolationism)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예술작품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맥락체계로, 이는 주변 환경, 역사적인 내용, 그리고 예술작품에 풍부한 경험과 영양분을 공유한 모든 지식 및 이에 연관된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맥락주의(Contextualism)에 의한

13) 김철희(2002). 도시 맥락의 재해석을 통한 박물관 계획에 관한 연구: 운니동 근대사 박물관 계획안에 적용하여, 홍익대학교. p.5-6

관점에서 보면 예술작품의 평가는 맥락에 두어야 하며 심지어는 추상적인 미술이나 음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언어학과 문예학에서의 맥락의 개념은 언어의 내면적이고 외부적인 주변을 이해하는 것이며, 연관된 단어의 앞 뒤 주위는 해당 단어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문학을 완전히 독립적인 것,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인 요소와의 명백한 상응관계로서 파악할 경우 문학 또는 예술적 현상, 구조, 상황 사이에서의 맥락개념이 성립된다.¹⁴⁾

건축에서의 맥락은 물적인 환경조건의 맥락 관계는 물론 건물 디자인에 미치는 주변 환경, 역사적이고 정신적인 내용, 경험, 지식 등의 추상적인 사회, 문화적 요인에 대해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이고 광의적인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¹⁵⁾

건축에서 맥락주의가 대두된 배경은 20세기 기능주의 결과로 나타난 역사적 도시맥락의 파괴가 결과적으로 건축과 주변 환경과의 단절, 외부공간의 장소성 결여, 그리고 획일적이고 개성 없는 도시 건축의 산재 등 비인간적이고 반역사적인 도시구성을 초래하였다는 비난 때문이었다. 따라서 맥락주의에 기반한 건축 디자인은 개개의 건축을 항상 보다 큰 전체의 부분으로 보며,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중시하여 주변 환경과 동화되는 조화의 미를 창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몇몇 분야에서 살펴보았듯이 맥락의 근본적인 의미는 여러 영향요인의 동시적·총체적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하나의 체계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안에서 의미 있게 존재함을 의미한다. 즉 어떠한 구조든지 상대적 관계 안에서 필요에 의해 독립적으로 파악될 수 있으면서도 언제나 그 주위 환경과의 상호관련 속에서 종속된다는 것이다.

맥락의 개념을 바탕으로 살펴볼 때, 맥락주의 미학이론은 예술작품을 작품의 배경이 되는 사회, 정치,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해야한다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

14) Anold Hauser(1981). 한중석 역, “예술과 사회”, 홍성사, p. 24, 재인용

15) 진정(1983). “현대 미국건축의 Contextualism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7권, 113호, p.37, 재인용

다. 작품의 의미는 그것의 형태에 의존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의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기능에 따라 구조화되는 것이다.

나. 맥락적 관점의 필요성

페퍼는 맥락주의를 ‘변화(change)’와 ‘새로움(novelty)’을 담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 맥락주의는 하나의 사건이 이미 주어진 사건에 침투해서 변화를 일으킬 때, 그러한 변화로 인해 일어나는 새로움을 포착하기 위한 방법이다.¹⁶⁾

맥락적인 관점이 필요한 이유는 페퍼의 맥락주의 이론과 구성주의 이론을 통해 보면 알 수 있다.

1) 맥락주의 이론

Pepper는 20세기를 전후로 나타난 맥락 혹은 상황을 다룬 철학을 총칭하여 맥락주의라고 명명하였다. 그는 하나의 사건, 행위는 그가 속한 맥락 속에서 다른 사건 행위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이 변화해 나간다고 보는 세계관이다. 어떤 사건, 행위라도 계속 변화하며 진행되어 나아가는 주어진 사건인 기존의 맥락 속에 투입, 관여하게 되면 사건 또는 행위와 맥락이 상호작용함으로써 그 맥락은 또 다른 변화와 새로움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즉 한 사건, 행위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전체의 맥락에서 얻어진다.¹⁷⁾

페퍼는 맥락주의를 ‘변화(change)’와 ‘새로움(novelty)’을 담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 맥락주의에서는 문제, 사건, 행위 또는 사람, 사물을 막론하고 현안의 화두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간주한다. 즉 어떠한 화두도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인 역사적이고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그 자신이 그 맥락의 일부가 되어 전체의 맥락과 상호작용하며 지속적으로 관계 맺어 나

16) 이용흠(2010). “맥락주의와 근대건축: 알도로시와 루이스칸의 건축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p.39-40, 재인용

17) 손혜원(2008). 미술수업에서 맥락주의(Contextualism)적 접근 방법을 통한 사회 문화 현상 이해 교육, 서울교육대학교, p.5

아간다고 본다.

한 사건은 역사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총체적 맥락의 관점에서 파악된다. 이렇게 맥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맥락적인 의미는 일회적으로 고정적으로 동일한 맥락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 사건, 행위의 의미 또한 일회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작품을 읽을 때는 작품의 본질 외에도 그 주변의 모든 배경과 요소들이 서로 얽혀 맥락을 이루고 있기에 음악 교육을 할 때에도 맥락 이해하기 과정을 통해 더욱 풍성한 음악적 체험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구성주의 이론

구성주의는 학습효과의 맥락 의존성을 강조한다. 지식은 그것이 획득되고 활용되는 구체적 맥락과 관련해서만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지식을 학습한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만 그 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 교실에서 학습된 지식이 생활 상태에 자동적으로 전이되어 문제해결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지식이 획득된 맥락과 유사한 과제 환경에서만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¹⁸⁾

구성주의 학습의 목표는 복잡한 여러 변인이 얽혀 있는 상태 그대로의 과제를 갖고 교사나 수업 설계자들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닌 학습자들 스스로 자신의 지식수준과 관심, 흥미에 따라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라 할 수 있다.

구성주의 학습은 지식이 생성되고 활용되는 실제 생활 사태와 유사한 맥락에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실생활의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 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¹⁹⁾, 인지적 도제학습(cognitive apprenticeship)²⁰⁾, 상황적 수업(anchored

18) 손혜원(2008). 미술수업에서 맥락주의(Contextualism)적 접근 방법을 통한 사회 문화 현상 이해 교육, 서울교육대학교, p.6

19) 학습자들에게 제시된 실제적인 문제를 협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학습자들이 공동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한 후, 개별학습과 협동학습을 통해 공동의 해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instruction)²¹⁾ 등은 문제 해결식 수업을 통해 교과 지식의 유의미한 학습을 도모하기 위한 구성주의 전략들이다.

구성주의 학습은 무기력한 지식의 암기보다는 이해, 문제해결, 개념변화를 강조한다. 지식을 그것이 생성되고 적용되는 유의미한 맥락과 유리된 상황에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유의미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학습을 도모한다.

위에서 언급한 맥락주의 이론과 구성주의 이론을 통해 모든 유기체는 다양한 요소들과 연관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다문화 음악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화적 배경, 역사적 배경 등의 맥락적인 관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 맥락적인 관점과 음악교육

음악은 소리로서 인간의 느낌과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인간과 함께 공존해 온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음악은 사회와 사회 연관성을 가지며 사회적·문화적 체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아무리 개인적인 사상이나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 사회의 관습과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 예술 사회학에서는 음악이 독립되고 보편적인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조건 및 구조와 긴밀히 연관된 것으로 파악한다.²²⁾ 또한 엘리엇은 “음악은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²³⁾

음악 교육은 그 자체로 학생들이 음악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며, 음악을 이해하는 것 위주로 이루어진다. 음악은 의도적으로 습득한 지식과 문화로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음악을 이해할 때 반드시 음악의 성장과 생존을 담당하

학습자 중심의 학습환경이자 모형이다.

20) 인지적 도제 이론(cognitive apprenticeship theory)은 학습이 처음에는 문제해결의 주변적 참여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완전한 참여와 주도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론이다.

21) 교수자가 실제상황을 보여주고 학습자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문제해결에 참여한다.

22) 임이숙(2005). 문화 다양성 시대의 음악교육과정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p.67

23) 함희주(2006).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사회학적 접근의 필요성”, 「음악교육연구」 제31호, p.232, 재인용

는 문화에 의해 인지하게 된 사실들을 고려해야만 한다.²⁴⁾

이러한 음악교육에서의 맥락적 이해는 2011년 발표된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중학교 음악교육 목표에서 맥락을 고려한 교육을 언급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볼 수 있다.²⁵⁾

가.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한다.

나. 음악의 연주 기능을 익혀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역사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한다.

다. 음악의 가치를 인식하고, 음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음악을 활용하는 태도를 갖는다.

음악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교육 목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문화 음악교육을 할 때 역사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악곡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악곡에 대하여 표면적으로 음악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맥락과 함께 이해하면서 음악적 표현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 맥락적인 관점과 전통문화교육

전통문화는 수준 높은 고유의 전통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 경제, 사회, 종교 등 그 시대의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본 항에서는 다문화 음악교육 할 때 필요한 구성 및 조직을 위해 먼저 전통 문화에 대한 층위를 분류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여기에서 사용하게 되는 문화에 대한 ‘층위’의 개념은 구조주의에 의한 문화 분석

24) Akuno,E.A.(2001). A Conceptual Framework for Reserch in Music Education Within a Cultural Context, Universiry of Illinois p.3-6

25)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12]

에서 이미 사용되어진 개념이다. 구조주의 인류학자인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는 인간 무의식 깊숙이 존재하는 일반적이고 구조적인 무의식을 인간이 창출한 다양한 문화를 구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찾으려 하고 있는데²⁶⁾, 그는 예술, 종교적 의례, 또는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행위의 유형들에 의해 표현되는 문화란 것은 인간의 심층심리에 깔려 있는 구조가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역으로 문화의 재차원을 통과하여 심층까지 파고 들어가면 그러한 문화현상을 결정짓는 인간의 의식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다문화 음악교육의 주요내용으로서 맥락적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먼저 문화에 대한 ‘층위’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층위의 개념은 니콜라이 하르트만(Nicolai Hartmann)의 미학에서 사용되는 성층(成層)의 개념과도 같은 것으로서, 하르트만은 예술에 있어서 제1차적 관조의 대상을 전경(Vordergrund)이라 하고 제2차적 관조의 대상을 배경(Hintergrund)이라고 말하고 있다. 예술작품의 미적 가치는 배경 층이 전경 속에 현상하는 데서 성립하며, 따라서 예술작품에 있어서 미의 소재는 오직 전경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배경에만 있는 것도 아니라 배경이 전경 속에 나타나는 현상관계에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미는 이 두 가지가 교착하는 데에, 즉 비실사적인 배경과 실사적인 전경 사이에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관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²⁷⁾ 또한 예술작품의 존재구조로서 전경과 배경이라는 이층성 관계는 단순한 이층성이 아니며, 전경은 언제나 그 자체에 있어서 단순하고 단층적인데 반해, 배경은 구조적으로 자체 내에서 다시 층을 이루고 있다고 말한다.

“한편 정재걸 외의 그의 연구에서 ‘학교 전통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분류방식’으로서 전통 문화를 <전통적 세계관>, <전통적 생활문화>, <문화재적 전승문화>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조성기는 이러한 ‘층위’의 개념과 전통문화에 대한 분류에 따라 전통 문화는 여러 가지 배경(background)이 되는 내면적인 정신의 전통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전통적 세계관은 여러 가지의 전통적 생활문화(middleground)를 형성하게 되고, 각각의 전통적 생활문화에는 다양한 문화재적 전승문화(foreground)가 표면으

26) 임봉길 외(2000). “구조주의 혁명”,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193, 재인용

27) 김주완(2004). “니콜라이 하르트만 미학에서 현상관계와 성층관계”, 대한철학회논문집 「철학연구」 제 89집, p.131-152, 재인용

로 드러나게 된다고 하였다.²⁸⁾ 위의 내용을 토대로 각 나라의 전통문화 층위를 강조하여 음악교과의 특성에 맞게 다문화 음악수업을 조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음악교육을 위한 수업을 위해 최근 한국과의 사회·문화적 연관성이 증대되고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아시아의 음악적 특징을 잘 나타내는 민요를 제재곡으로 선정하고 제재곡인 나라에 대해 이해하고 배우는 단계로서 맥락적 교육을 어떻게 해야할지 구성하여 본다. 과정은 먼저 나라의 Background가 되는 역사적, 지형적, 문화적, 음악적 특징 등을 배우고 이해하고 배경을 통해 생겨난 그 나라의 민속놀이, 전통놀이 등을 감상하거나 놀이나 신체표현을 통해 경험해 본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Foreground에 해당하는 음악적 활동하기로 제재곡 구성요소를 익히고 불러 본다. 이러한 맥락 이해하기 과정을 통해 제재곡을 접근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욱 풍성한 음악적 체험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맥락적 음악교육은 문화의 여러 갈래 중 한 맥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통적인 요소를 통해 나라간의 문화적 특성의 비교와 음악적 활동으로 그 나라 문화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돕는데 의미를 둔다.

다문화 음악교육은 ‘세계화’에 따른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음악교육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위해 우리가 시행해야 할 교육으로 글로벌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사회인으로서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의 배양과 낯선 생활방식에 대한 태도와 존중 등 관용적인 태도를 기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일반 교육적 접근 이외에 문화적 접근, 그리고 해당 나라의 음악 문화와 배경을 이루게 된 역사 및 사회적인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음악교육은 제재곡을 중심으로 한 음악이론과 실음위주의 교육이 보편화 되어 있으나 맥락적 음악교육을 통해 그 나라의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의 배경과 함께 음악 활동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28) 양윤정 외(2009).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안 연구, p.109-110

3. 선행연구 분석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이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사회의 세계화 추세에 따른 것이었다. 1980년대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학문과 문화가 서양 중심이었음을 반성하고, 서양 이외의 지역에서 발달한 학문화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음악 교육의 분야에서도 국악은 물론, 비서구음악도 수업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90년대에 이르러 다문화적 음악교육론은 더 많은 교육가들에 의해 연구되기 시작했고,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도 다문화적 자료들이 추가되었다.²⁹⁾

다문화 음악교육에 관한 연구는 다문화 음악교육의 필요성과 의의, 교과서 및 교육과정의 분석, 수업 지도안 및 교수법에 대한 연구, 수업 실태 및 교사와 학생의 인식 조사 등 크게 네 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한국의 다문화 음악교육에 관한 연구는 1994년 처음으로 관련 논문이 발표된 이래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³⁰⁾

전인수(2006)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에 대한 다문화주의적 지도방안 연구」를 통해 서론에서 다문화주의 교육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다문화주의 교육에 대한 개념정리와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정리함으로써, 교육과정에서 다문화주의 교육에 대하여 어떻게 제시하였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언급한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에 대한 인식과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을 가르쳐 본 경험,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다문화적인 음악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 방법을 제시하였다. 다섯 단계로 분류한 지도 방법은 다음과 같다.

29) 권덕원(2004). 「학교 음악 교육 : 50년의 회고와 전망」 음악교육연구. 제27집. p.37-38.

30) 이승연(2011). 다문화 음악교육에 관한 중등음악교사들의 인식조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23

첫째, “Background Information”으로 그 나라의 기본이 되는 문화 배우기, 둘째, “Sample Lesson”으로 교과서 제재곡 배우기, 셋째, “More to Learn and Do” 으로 심화학습 또는 선택학습과정, 넷째, “Snacks”으로 놀이 활동, 다섯째, “Crafts” 으로 민속품 만들기이다. 이와 같이 다섯 단계의 체계적인 활동을 통하여 음악 수업을 한다면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에 대한 다문화주의적인 교육을 실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음악을 중점으로 분석하고 설계하였는데 최근 들어 아시아 외국인의 인구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나라가 대부분 아시아인 것을 고려하였다. 이에 관하여 권자영(2007)은 현행 교과서에서 다문화적 악곡들이 유럽과 아메리카로 편중되어 있어서 한국 상황에 맞는 한국적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이 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고, 태국·필리핀·베트남의 코시안과 한국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 제재곡의 개편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초·중·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아시아권 음악을 조사하여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한국적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의 대안으로 태국, 필리핀, 베트남 제재곡의 악보와 초·중·고등학교별로 한곡씩 교수-학습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적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은 코시안과 이주 노동자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하며, 한국 학생들은 다양한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그들의 사회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어현숙(2010)은 음악과 교육과정을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민요 지도방안을 연구하였다. 학습대상은 7학년으로 2007개정 교육과정의 지도 방향에 맞추어 고안되었으며, 제재곡은 결혼 이민자 출신국의 비율을 고려하여 필리핀, 베트남, 중국 민요로 선정하였다. 지도안은 한국의 다문화 음악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통합학습 모형, 맥락학습 모형, 조사학습 모형, 정의적 학습모형의 네 가지 학습모형에 제재곡을 적용하여 제시되었다.

이와 같이 다문화 음악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은 다문화 음악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와 다문화 음악 관련 프로그램 및 자료의 개발 등 다문화 음악교육 환경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음악교육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재곡을 중심으로 한 음악이론과 실음위주의 교육이 아닌 맥락적 음악교육을 통해 그 나라의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의 배경과 함께 음악 활동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Ⅲ. 2007개정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 분석

1. 2007 개정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의 다문화 음악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2010년부터 시행되어 중학교 1학년에 적용되었고 2011년에 2학년, 2012년에 3학년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되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은 기존 시행하고 있던 ‘7차 교육과정’과 비교해 볼 때 초·중·고 공통사항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 등에 대해 특별한 배려와 지원에 대한 부분이 신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³¹⁾ 이는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더불어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Ⅲ-1>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차이점

구 분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초·중·고 공통사항 (신설사항)	내용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년군, 교과군 개념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별 기준시수를 20%증감 운영 등 ◦교과 교실제 운영 활성화 유도 ◦학습부진아, 다문화 가정 자녀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지원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시도교육청 지원 사항 신설

맥락적인 고찰을 통한 다문화 음악수업 설계를 하기 위해 먼저 2007 개정 교과서에 다문화 주의적 요소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악곡의 분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학교 1학년 2007 개정 교과서에서 제시된 다문화적 악곡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소진형. 2009개정 교육과정의 올바른 이해. 교육과학기술부

<표 Ⅲ-2> 2007 개정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에서 제시된 다문화적
악곡의 대륙별 분포

대륙	국가
아시아	일본,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필리핀, 이란, 이스라엘, 터키, 스리랑카, 인도, 몽골, 키르기스스탄
유럽	독일, 스위스, 프랑스, 러시아, 영국, 이탈리아, 보헤미아, 오스트리아, 웨일즈, 헝가리,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멕시코, 노르웨이, 뉴질랜드
아메리카	미국, 아르헨티나
기타	카리브해

대륙별 분포를 보면 아시아는 16개국, 유럽은 15개국, 아메리카 2개국, 기타 카리브해의 악곡이 포함되어 대륙별 분포에서 아시아와 유럽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 개정 교과서에서 가장 큰 변화는 교육과정에 아시아 민요 부르기가 필수로 지정되어 7차 교과서에서는 아시아 국가가 이스라엘, 터키, 중국 3개국만 나오는데 비해 2007 개정교과서에서는 16개국으로 아시아 민요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아시아 민요가 다양한 국가에 걸쳐 넓게 분포되어 있고,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높기 나타나는 아시아 지역의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과학 기술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2010년 다문화 가정 자녀 현황」을 통해 다문화 가정 학생의 부모 중에 아시아 계통이 94.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을 통해 맥락적 고찰을 통한 다문화 음악수업 설계에 앞서 설계에 사용될 제재곡은 중학교 1학년 16종 음악교과서의 2007 개정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시아 민요를 중심으로 한다. 아시아 민요를 분석할 16종 교과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Ⅲ-3> 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1학년 16종 교과서 목록

순서	출판사	저자
1	(주) 교문사	전낙표, 신혜영, 이성은
2	(주) 교학사	이홍수, 유명국, 김일영
3	(주) 금성출판사	양종모, 우광혁, 신현남, 윤성원, 김한순, 득고현
4	(주) 더텍스트	김미숙, 임강은, 이호경, 김혜선
5	두산동아	최은식, 석문주, 권덕원, 황병훈, 이은하, 강선영, 오지영, 송주현, 홍수민, 박종화
6	(주) 미래엔	장기범, 송무경, 임원수, 김유경, 김경태
7	(주) 박영사	주광식, 진태식, 채은영, 최은미
8	법문사	김정숙, 이성율, 지종문, 정원경
9	성안당	정육희, 이내선, 이희종, 박은정, 설창환, 이현창
10	세광음악출판사	허화병, 이희원, 오병태, 장주연
11	(주) 지학사	윤명원, 정길선, 황병숙, 강세연
12	(주) 천재교육 (민)	민은기, 신혜승, 김세종
13	(주) 천재교육 (백)	백병동, 최현, 문경해, 홍기순, 김은하
14	태림출판사	조효임, 강민선, 양은주, 한태동
15	도서출판 태성	주대창, 정은경, 노혜정, 김동수
16	현대음악	윤경미, 장보운, 곽은순, 곽성원

2. 아시아민요 분석

가. 아시아 민요 국가별 분석

<표 Ⅲ-4> 아시아 민요 국가별 분석

지역	국가	교문사	교학사	금성	더렉스트	두산	미래	박영사	법문사	성안당	세광	지학사	천재·민	천재·백	태림	태성	현대	계	
아시아	중국	1	1	2	1	1	1	1	1	1	1	2	1	1	1	1	1	18	
	일본	2	1	2	1	1	1	1	1	1	1		1	1	1	1	1	17	
	이스라엘			1	1		1	2	1	1		1		1		1	1	11	
	인도네시아			1				2	1	1		2		1	1		1	10	
	베트남	1	1					1	1		1	1			1		1	8	
	터키	1		1		1	1	1	1						1		1	8	
	필리핀	1		1			1	1	1			1			1	1		8	
	몽골	1	1		1			1	1				1					6	
	인도								1					1	1		1	4	
	이란						1	1	1									3	
	스리랑카						1					1						2	
	타이						1											2	
	대만							1										1	
	말레이시아								1										1
	싱가포르								1										1
	키르기스스탄				1														1
	합계		7	4	8	5	3	8	14	10	4	3	8	4	5	6	5	6	

2007 개정 교과서에 수록된 아시아 민요들을 분석하여 가장 많은 곡이 수된 른나라부터 순서대로 나누었다. 분석 결과, 아시아 민요 중에서도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중국으로 18곡이 수록되어 있었다. 다음으로는 일본,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베트남, 터키, 필리핀, 몽골, 인도, 이란, 스리랑카, 타이,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키르기스스탄의 순서로 수록되었다. 16종 교과서에서 아시아민요를 모두 다루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출판사 박영사가 12개 나라의 곡을 다뤄 14곡으로 가장 많았다.

나. 아시아 민요 곡목별 분석

위에서 제시한 순서대로 각 나라의 민요들을 분석하여 가장 많은 곡 순서대로 표로 나타내었다.

<표 Ⅲ-5> 아시아 민요 곡목별 분석

국가	곡목	교문사	교학사	금성	더텍스트	두산	미래	박영사	범문사	성안당	세광	지학사	천재·민	천재·백	태림	태성	현대	계
중국	모리화	1		1			1	1	1	1	1		1	1	1		1	11
	물에비친하늘		1													1		
	만리장성											1						
	무지개자매				1													
	중국의자장가			1														
	초원의 노래					1												
	초원정가											1						
계	1	1	2	1	1	1	1	1	1	1	1	2	1	1	1	1	1	18
일본	벚꽃 (사쿠라사쿠라)	1		1		1		1	1	1	1		1	1		1	1	11
	달아달아						1											1
	밑빠진 냄비														1			1
	반딧불아오너라				1													1
	새장의작은새	1																1
	일본의자장가			1														1
	코끼리 코절		1															1
계	2	1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7
이스라엘	안녕						1	1	1			1						4
	하바나길라			1				1						1			1	4
	돌아가리															1		1
	줌 갈리								1									1
	휴식				1													1
계			1	1		1	2	1	1		1		1		1	1	11	
인도네시아	붕가완 솔로			1								1	1					3
	침밀밀							1				1		1				3
	양거춤 추세								1								1	2
	내 어머니									1								1
	라사 사양계							1										1
계			1				2	1	1		2		1	1		1	10	

베 트 남	어린이들의축제	1	1					1	1		1			1			6	
	리디아빠임보									1						1	2	
	계	1	1					1	1		1	1		1		1	8	
터키	우스쿠다라	1		1		1		1	1					1		1	7	
	여름날					1											1	
	계	1		1		1		1	1					1		1	8	
필 리 핀	꽃은지고	1		1				1	1					1	1		6	
	아들아					1											1	
	예뻐이 따이따이										1						1	
	계	1		1		1		1	1		1			1	1		8	
몽골	몽골의 밤의 노래	1	1					1	1			1					5	
	경마대회				1												1	
	계	1	1		1			1	1			1					6	
인도	달아달아								1							1	2	
	디왈리 노래											1					1	
	비그네슈와라												1				1	
	계								1			1	1		1		4	
이란	소맥꽃					1	1	1									3	
	계					1	1	1									3	
스리 랑카	코끼리바나마					1					1						2	
	계					1					1						2	
타이	풍년의노래					1						1					2	
	계					1						1					2	
대만	알리산							1									1	
	계							1									1	
말 레 이 시 아	람베람베							1									1	
	계							1									1	
싱가 포르	찬 말리찬							1									1	
	계							1									1	
키르 기스 스탄	축복말씀을 나누세				1												1	
	계				1												1	
계	44	7	4	8	5	3	8	14	10	4	3	8	5	5	6	5	6	101

분석결과를 통해 각 나라를 대표하는 민요가 무엇인지 살펴 볼 수 있다. 가장 많은 곡이 수록된 중국민요 중에서는 ‘모리화’가 11번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곡들은 1~2번 수록되어 ‘모리화’가 중국을 대표하는 민요임을 알 수 있다.

중국 다음으로 많은 곡이 수록된 일본도 ‘벚꽃(사쿠라사쿠라)’가 11번 수록되었다. 이스라엘 민요인 ‘하바나길라’와 ‘안녕’이 각각 4번 수록되었고 인도네시아 민요인 ‘붕가완 솔로’와 ‘침밀밀’은 각각 3번 수록되었다. 베트남 민요인 ‘어린이들의 축제’는 총 8번 중에 6번 수록되어 베트남을 대표하는 민요임을 알 수 있다. 터키 또한 총 8번 중에 ‘우스쿠다라’가 7번 수록되어 터키를 대표하는 곡임을 알 수 있다. 필리핀은 ‘꽃은 지고’가 6번, 몽골은 ‘몽골의 밤의 노래’가 5번, 인도는 ‘달아달아’가 2번, 이란은 소맥꽃 3번, 스리랑카는 ‘코끼리바나나’가 2번, 타이는 ‘풍년의 노래’가 2번으로 나라별로 공통적으로 수록된 곡명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대만의 ‘알리사’, 말레이시아의 ‘람베람베’, 싱가포르의 ‘찬 말리찬’, 키르기스스탄의 ‘축복의 말씀을 나누세’는 각각 1번씩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아시아 민요 단원별 분석

2007 개정 교과서에서는 아시아 민요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총 16종 교과서중 10종으로 금성출판사와 미래엔, 박영사, 법문사, 성안당, 세광음악출판사, 지학사, 천재교육(민), 태림출판사, 현대음악출판사에 단원별로 아시아 민요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단원을 구성하여 제시한 교과서를 다음의 표로 구성하여 단원명과 학습내용을 정리하여 보았다.

<표 Ⅲ-6> 아시아 민요 단원별 분석

출판사	단원	학습내용
금성출판사	3. 다른나라의 음악 -아시아 여러 나라의 노래	세계 여러 나라의 노래와 악기를 통해, 다른 나라의 정서와 문화를 이해하자. 다문화 시대가 열렸다!
미래엔	5.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음악	우리나라와 아시아 민요의 특징을 살려 노래할 수 있다.
박영사	2. 자랑스러운 아시아	지역 및 문화적 특성으로 아시아를 구분해보자. 동아시아에 속한 나라의 민요를 불러보고 그 느낀점을 이야기해 보자.
법문사	9. 음악과 세계 -아시아편-	중국과 일본의 민요를 부르고 감상한다.
성안당	4. 이웃나라의 민요와 음악극 8. 아시아의 민요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의 음악과 문화를 이해하고 음악극을 감상한다. 인도네시아와 서남아시아의 문화를 이해하고, 민요를 불러보고 전통악기를 알아본다.

세광음악출판사	4. 다른 나라(아시아)민요 부르 기	아시아 여러 나라의 음악과 문화를 이해하고 여러 나라의 언어로 노래할 수 있다.
지학사	6. 더 넓은 음악세상 -아시아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의 민요를 듣고 부르면서 각 지역이 풍습, 생 활 습관, 민족성 등에 대하여 알아보자.
천재교육(민)	3. 아시아의 음악 여행	아시아 여러 나라의 노래를 불러 보면서 각 나라의 문화 와 음악적 특징을 알아보자.
태림출판사	5. 지구촌 음악 -아시아-	다른 나라의 노래를 다양한 방법으로 불러보고 리듬 표현 해 본다.
현대음악	4. 음악으로 아시아를 여행해요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와 음악 을 이해하고 악곡의 특징을 살려 노래 부른다.

‘금성출판사’는 3단원에서 아시아민요를 다루고 있다. 다른 나라의 음악이라는 주제 아래 세계 여러 나라의 노래와 악기를 통해, 다른 나라의 정서와 문화를 이해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중국 민요인 ‘모리화’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의 ‘봉아완 솔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각 나라와 노래의 이해를 돕는 설명이 제시되어 있으며 곡을 활동을 통해 익히기 위한 방법으로 음계와 리듬을 익히기, 게이름으로 노래하기, 원어로 불러보기, 오페라에 사용된 제재곡 듣기, 가락 만들어 보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아시아의 여러 나라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터키와 필리핀, 태국, 일본의 민요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전통악기를 대륙별로 나누어 사진으로 제시하였다.

‘미래엔’은 5단원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음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각 지방의 민요에 대해서 배우고 아시아 민요를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아시아 민요의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스라엘, 터키, 이란, 스리랑

카, 타이, 일본, 중국 민요를 수록하여 지도에 연결하여 위치를 알아보고 민요를 불러 볼 것을 제시하였다.

‘법문사’는 9단원에서 음악과 세계(아시아편)라는 제목으로 아시아의 음악과 문화를 이해하는데 학습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의 ‘모리화’와 일본의 ‘벚꽃’을 비교 감상하여 불러보고 이해영역에서 아시아 6개의 나라의 민속 악기를 소개하고 있으며 생활화 영역에서 아시아 음악을 이해하기 위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데 활동 내용으로는 모듬별로 나라에 대해 알아보기, 조사하기, 감상하기, 우리나라 음악과 비교하기가 있다.

‘성안당’은 두 단원에 걸쳐 아시아 음악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4단원에서 이웃 나라의 민요와 음악극이란 제목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과 일본의 민요를 불러 보고 그들의 음악극인 경극과 가부키를 감상해보도록 하였다.

8단원은 아시아의 민요라는 제목으로 먼저 인도네시아의 민요인 ‘내 어머니’를 불러보고, 가믈란 합주를 감상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 이스라엘 민요인 ‘춤 갈리’를 소개하여 오스티나토의 음형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감상하기로 아시아 음악의 특징을 이해하고 터키, 인도, 싱가포르, 베트남, 몽골, 대만의 민요를 감상하고 불러 보도록 하였다.

‘세광음악출판사’는 다른 나라 민요 부르기라는 제목으로 아시아 민요 3곡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모리화’와 일본의 ‘벚꽃’, 베트남의 ‘즐거운 축제’인데 아시아 민요에 대해 간단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으며 악보를 제시하여 노래 부르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지학사’는 아시아의 민요를 이해,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생활화의 영역으로 나누어 학습 내용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아시아의 민속악기와 특징에 대해 소개하고 중국의 ‘만리장성’를 불러보고 ‘초원정가’를 감상하도록 되어있다. 중국의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첨밀밀’ 주제가를 단소로 연주하도록 제시하였다. 인도네시아의 ‘붕가완 솔로’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문화에 대해 배우고 생활용품을 이용한 리듬 연주를 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 베트남

의 ‘리 디아 빠임 보’, 이스라엘 ‘안녕’, 필리핀의 ‘예쁘이 따이 따이’, 스리랑카의 ‘코끼리 바나마’의 악보를 수록하여 불러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천재교육’은 아시아 민요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우리나라 각 지방의 민요를 소개하고 우리 조상들이 생활 속에서 불렀던 여러 민요를 쓰임새별로 조사하여 발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요와 전통 축제를 살펴보고 축제 속에서 음악의 역할과 아시아 문화를 이해하도록 하였다.

‘태림출판사’는 각 나라의 특색을 살려 노래를 불러 보게 하였다. 중국의 ‘모리화’는 우리말과 중국어로 불러 보게 하였고, 필리핀의 ‘꽃은 지고’는 전래놀이를 하면서, 베트남의 ‘축제의 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북을 치며 불러 보도록 제시하고 생활용품을 활용하여 타악기를 만들어 연주하도록 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넓은 의미에서 아시아권 국가로 간주되기도 하는 뉴질랜드의 민요인 ‘연가’를 수록하여 2부 합창 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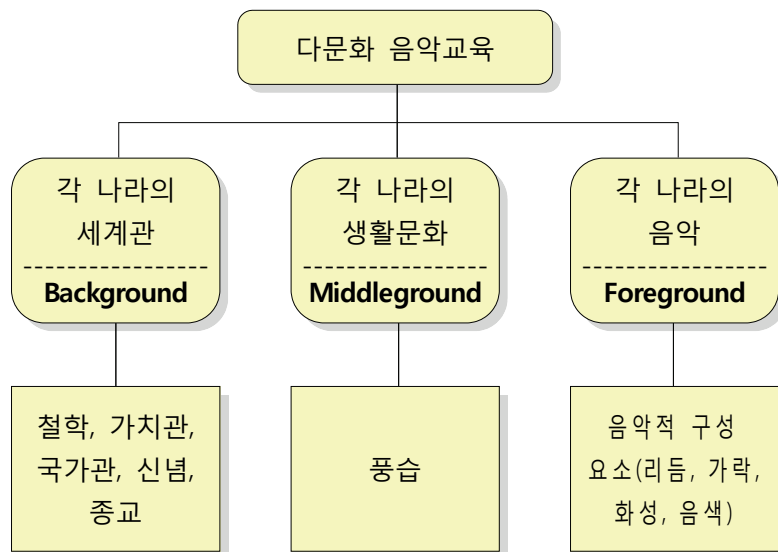
‘현대음악’은 4단원에서 음악으로 아시아를 여행해요라는 제목으로 각 나라의 특징적인 내용들을 소개하고 민요마다 원어와 발음을 표기하여 불러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중국의 ‘모리화’와 일본의 ‘벚꽃’, 터키의 ‘위스퀴다르’, 베트남의 ‘리 디아 빠임 보’, 이스라엘의 ‘하바 나길라’가 수록되어 있다.

10종의 교과서에 단원별로 수록된 아시아 민요들을 통해 교과서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아시아 문화를 소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공통적으로 다루는 곡들이 각 나라를 대표하는 민요임을 알 수 있으며 아시아만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그 나라의 문화와 삶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되었다. 효과적인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악보만 제시하고 가창하는 수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각 나라의 문화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느낀 후에 더 나아가 음악적 활동을 통해 각 나라의 문화 가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V. 맥락적 고찰을 통한 다문화 음악수업 설계 및 적용

1. 설계 중점 및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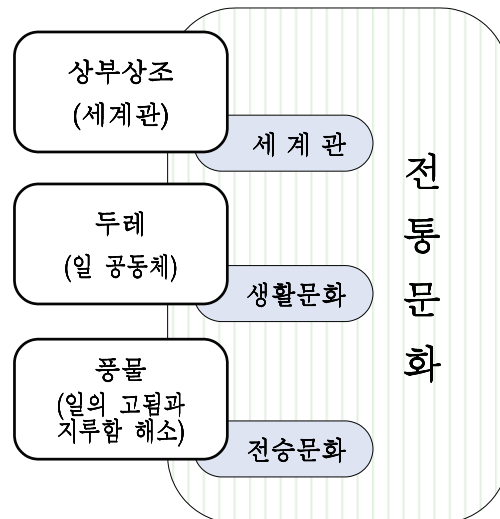
본 연구의 학습설계에서는 일반교육과정의 내용 안에 있는 다문화 음악교육의 영역을 더욱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수업이 되게 하기 위하여 맥락적 내용을 통해 접근해보고자 한다. 다문화 음악교육의 주요내용으로서 맥락적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문화에 대한 ‘층위’의 개념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3단계로 구성해 보면 먼저 각 나라의 음악을 배우기 전에 음악의 여러 가지 배경이 되는 내면적인 정신의 전통적 세계관인 각 나라의 철학, 가치관, 국가관 등에 대해 이해하도록 가르친다. 다음 단계는 이로 인해 형성되는 전통적 생활문화에 대해 배우면서 각 나라의 생활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타문화에 이해를 하고 느낀 후에 제재곡을 통해 그 나라의 음악적 구성 요소들을 학습하게 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V-1] 다문화음악교육 설계구성요소

위의 그림으로 구성해 본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살펴봄으로써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우리나라 전통사회의 생활 단위였던 마을 공동체의 문화 속에는 일과 놀이, 신앙과 의례가 유기적인 결합을 이루고 있었다. 두레를 예를 들면, 이는 기본적으로 협업에 의해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 공동체이며 공동 휴식과 공동 취사 및 공동 놀이를 하는 생활 공동체이기도 하였다. 두레가 형성되면 그때부터 휴식, 식사, 놀이가 공동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일의 고됨과 지루함을 덜어주기 위해 풍물과 노래를 즐긴다. 다음은 이들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³²⁾



[그림 IV-2] 전통문화 층위 구조의 적용

이처럼 각각의 문화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하게 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유기적인 관계 속에는 심층적인 구조를 갖게 된다. 이러한 구성을 통하여 다문화 수업이 이루어질 때 음악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나라간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여 문화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돕는데 의미를 두고 더 나아가 음악적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2) 양윤정 외(2009).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안 연구", p.111, 개인용

2. 다문화 음악수업을 위한 모형 설계

앞 장의 이론적 배경과 교과서 분석, 설계중점 및 설계 구성요소를 토대로 맥락적 고찰을 통한 음악 수업을 위한 모형을 설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1> 맥락적 고찰을 통한 다문화 음악수업 모형

단계	과정		교수 · 학습 활동
도입	제재곡 제시 학습목표 제시 동기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나라의 간단한 인사말 배우기 ▪ 영상이나 이미지 등을 통한 각 나라 문화에 대한 흥미 유발 활동
전개	맥락 이해하기	Backgrou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특징 이해하기 : 역사적, 지형적, 문화적(국가관, 가치관, 종교, 신념 등) 특징
		Middlegrou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체험하기 ▪ 생활 문화 이해 ▪ 각 나라의 민속놀이나 전통놀이 체험
	음악적 활동하기	Foregrou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 악곡의 특징(음악 구성요소) 익히기 ▪ 제재곡 부르기 ▪ 제재곡 연주하기 ▪ 제재곡 감상하기
정리	정리 및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한 내용 정리 및 소감 나누기 ▪ 차시 예고

가. 도입

다문화 음악교육의 수업을 위해 먼저 제재곡 선정이 중요하다. 최근 한국과의 사회·문화적 연관성이 증대되고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나라들의 음악적 특징을 잘 나타내는 민요나 가곡, 동요, 기악 악곡 등을 제재곡으로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학습 목표는 음악의 이해에 필요

한 3가지 영역으로 서술하며, 지식과 관련된 인지적 영역의 목표, 음악의 활동 즉 가창, 기악, 창작, 감상 등에 필요한 기능과 관련된 행동적(심동적) 영역의 목표, 음악이나 음악 활동에 대한 관심, 태도 등과 같은 정서적인 면과 관련된 정의적 목표로 서술한다.

나. 전개

제재곡인 나라에 대해 이해하고 배우는 단계로서 맥락적 음악교육에서 중요한 활동 과정이다. 외국어로 된 제재곡의 가사를 접하기 전에 그 나라의 Background가 되는 역사적, 지형적, 문화적 특징(국가관, 가치관, 종교 신념 등을 포함) 등을 배우고 이해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Middleground로서 이러한 배경을 통해 생겨난 그 나라의 민속놀이, 전통놀이 등 생활 속에 나타나는 풍습이나 놀이를 신체표현을 통해 경험하고 체험해 본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Foreground에 해당하는 음악적 활동하기로서 제재곡의 표면에 드러나는 음악적 구성요소를 익힌다. 이러한 맥락 이해하기 과정은 제재곡에 접근하고 이를 이해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매력적으로 연주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한 음악적 체험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다. 정리

마지막 단계는 다양한 이해와 활동으로 익힌 학습 활동을 토의와 발표 등을 통해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고 발표하는 학습 활동이다. 우리나라 음악과 다른 나라 음악의 공통점이나 차이를 통해 느낀 점이나 각 학습활동에 맞는 내용들을 발표하게 함으로써 다른 문화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단계이다.

3. 맥락적 고찰을 통한 다문화 음악수업 모형의 적용

II장의 이론적 배경을 통해 다문화 가정 학생의 부모 중 아시아 계통의 학부모가 94.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중국과 베트남, 일본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음악교과서 16종의 분석에서도 아시아 민요 중 중국, 일본,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베트남, 터키, 필리핀 등의 많은 순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민요 「모리화」, 일본의 민요 「벚꽃」, 베트남의 민요 「리 디아 빠 임 보」 등에 맥락적 고찰을 통한 다문화 음악수업 모형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가. 일본 민요 : 벚꽃

1) Background 맥락 분석

① 일본의 지리적 특징

일본은 한반도 면적의 1.7배 크기의 국가로 유라시아대륙 동쪽 끝의 해상에 위치하고 있다. 홋카이도(北海道) · 혼슈(本州) · 시코쿠(四國) · 규슈(九州)의 4개의 거대한 섬과 약 6,9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일본은 전체적으로 북동에서 남서로 걸쳐지는 긴 활 모양의 열도이다.³³⁾

일본은 섬나라라고 해도 외국과의 거리는 그다지 멀지 않아, 규슈와 한반도와의 거리는 약 200km, 나가사키현(長崎縣)의 쓰시마(對馬)³⁴⁾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는 약 50km에 불과하다. 또한 홋카이도와 러시아의 사할린섬 사이에 위치한 소야(宗谷) 해협까지는 불과 40km 정도이며, 서쪽 끝에 위치한 요나구니지마에서 대만(臺灣)까지의 거리도 100km 정도에 불과하다.

일본 열도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위치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한반도와 중국, 동

33) 정형(2009). 사진 통계와 함께 읽는 일본, 일본인, 일본문화(다락원) p.13

34) 쓰시마(對馬): 규슈와 한반도 사이에 있는 섬으로 나가사키현의 일부이다. 대한해협 중간에 위치하며 부산에서 50km 거리에 있다.

쪽으로는 미국, 그리고 남쪽으로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 중 독도와 북방사도(北方四島), 센카쿠제도(尖閣諸島)는 제각기 한국, 러시아, 중국(대만)과의 사이에 영유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② 일본의 종교적 특징

일본에서는 헌법에 따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정된 국교는 존재하지 않고, 학교에서도 강제 종교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한일 양국 모두 토착신앙이 존재하고 그 뒤에 불교가 전래했으며 근세기에 들어와 크리스티교가 전래되었지만 양국의 종교관과 각 종교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토착신앙은 불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신도로서 체계화되어 가정 내의 가미다나(神棚)로부터 마을의 신사(神社), 황실의 조상을 숭배하는 이세신궁(伊勢神宮), 근대기에 국가에 의해 급조된 국가신도에 이르기까지 각 계층의 일본인의 생활 속에 자리잡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토착신앙은 조선시대의 강력한 유교의 영향력과 일제강점기에 내세운 미신 타파 등 일본의 종교정책에 의해 위축되어 지금은 한국 민중들 안에 크게 뿌리 내리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불교는 중국에서 주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전래된 보편종교로서 신앙의 내용은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렇지만 한국의 종파가 참선을 강조하는 조계종(曹溪宗)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의 종파는 선종(禪宗), 염불을 강조하는 정토종(淨土宗) 등 다양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일본의 불교는 에도시대를 통해 단가제도(檀家制度)에 의해 각 가정과의 유대성이 강화된 반면 불교가 주로 장례불교로서 형해화(形骸化)하는 폐해도 나타나게 되었다.

크리스티교의 전래도 일본은 15세기, 한국은 17세기인데, 일본의 경우는 스페인 등의 선교사가 직접 들어온 것이 특징이며, 양국 모두 국가에 의해 금지되

고 신도들은 박해를 받았다. 일본은 우리보다 이른 시기에 크리스티교과 전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의 크리스티교는 국민 전체의 2% 정도이고, 한국의 경우는 25%를 상회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국의 토착신앙과 불교, 크리스티교에는 유사점과 상이점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는 일본 역사의 전개과정과 일본의 정치문화, 그리고 일본인들의 가치관 등의 수많은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된다.³⁵⁾ 이러한 면이 지나는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양국 종교의 본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③ 일본의 음악적 특징

일본에서는 전통 음악에서부터 서양의 고전 음악, 팝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다. 5~9세기에 걸쳐 아시아의 주변 여러 나라로부터 대륙계 음악들이 유입되었고, 당나라의 당악과 불교 음악 등이 유입되기도 하였다. 사무라이들의 등장으로 궁정 귀족들이 몰락한 이후에는 향토 음악이 발전하였으며 16세기 후반에는 류큐 열도로부터 샤미센과 기독교 음악이 전래되었다. 메이지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기간에는 이전의 전통적 음악들을 보존하고 발전시켜왔으나 양악이 다양한 분야에 유입되면서 잠시 뜸해졌다가 현대에 이르러서 전통 예능 부흥 운동이 일어나 다시 왕성해지고 있다.³⁶⁾

일본의 전통 음악은 에도(江戸 : 현재의 도쿄) 시대까지의 음악과, 이에 유사한 형태로 작곡된 음악을 가리키므로, 메이지(明治) 시대 이후 생성된 양악 기법에 의한 음악은 이러한 개념에서 제외하게 된다. 메이지 시대까지의 일본은 여러 계급이나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여러 가지 문화는 각각 특정 계급이나 계층, 지역과 결부해서 발달했다.

전통음악의 대부분은 음악만으로 존재하지 않고 연극, 무용 등과 결합해서 보다 큰 종합예술 또는 예능의 일부로 존재하는 것이 많다. 오늘날에는 그 음악 부분만을 빼내어 무대에서 연주하거나 레코드로 녹음하기도 하는데, 예능의 한

35) 김태영·황혜경(2010). 일본 문화 이야기 (도서출판 보고사) p.113

36)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검색일자: 2012. 12. 7)

구성 요소라는 점이 그 음악의 기본적 성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 민족 악기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부분은 원래 수입된 것으로서, 그것을 개조하고 일본화해서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샤미센(三味線)으로서, 중국으로부터 오키나와를 거쳐 전래한 것을 비파처럼 개조해서 현재의 샤미센으로 했다. 그 비파도 샤미센보다 일찍 중국으로 부터 전래해서 일본화 시킨 것이다. 메이지 이후의 전통음악은 새로운 감각이 담긴 신곡을 레퍼토리에 추가해서 연주회 형식을 확립시켰으며, 또 계급·계층과의 배타적 결합 관계를 해소해서 전체 시민공유의 문화가 되었다. 그 후 잠시 방악(邦樂)이라는 개념으로 양악과 대립하는 시기가 계속되었으나, 최근에 이르러 일약 세계의 민족음악 속에 일본 음악의 자리를 굳혀 가게 되었다. 이를 통해 다른 문화에서도 그러듯 음악에서도 서양의 음악을 자신들만의 독특한 음악으로 발전시킨 것을 볼 수 있다.

“일본 전통음악은 유교사상이 짙게 깔려 있으며, 오래전부터 악기와 악곡을 신성시하여 비곡·비전(秘曲·秘伝) 등이 많다. 이러한 점은 에도시대(16~17세기) 특징의 하나로 나타남을 볼 수 있고, 또 불교사상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데 일종의 애조(哀調) 가락이나 불교의 무상관(無常觀)이 발견된다”³⁷⁾

현재의 일본 음악은 고전을 전승하는 한편 새로운 창작 활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종래의 곡종(曲種)·유파(流派)의 테두리를 초월한 성부 편성, 이를테면 양악 작곡가에 의한 작곡, 양악기·민족악기의 사용, 외국 음악과의 공연 등 주목할 만한 것이 많다.

37)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 파플러음악용어사전(삼호뮤직) (검색일자: 2012. 12. 2)

2) Middleground 맥락 분석

① 일본의 벚꽃축제

벚꽃은 일본을 대표하는 꽃으로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 중 하나이다. 일본에서 벚꽃은 오키나와에서 3월 초를 시작으로 해서 본토에서는 3월 하순부터 4월에 걸쳐 북상하면서 꽃을 피운다. 꽃이 피고 약 1주일이면 만발하는데, 이때가 되면 술과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꽃을 감상하면서 연회를 갖는데 이것을 꽃놀이(花見 : 하나미)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벚꽃나무 아래 돛자리를 깔고 그 위에서 연회를 갖는데 낮뿐만 아니라 밤 벚꽃을 감상하면서 밤에 꽃놀이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 꽃놀이는 헤이안 시대부터 궁정에서 즐긴 귀족놀이로 가마쿠라 시대 이후에는 무사 집안 사이에서도 유행했다.

근세 초기에 장군 등이 벚꽃의 명소에서 현란한 의상을 입고 가무를 곁들이며 즐긴 호화찬란한 꽃놀이는 에도 시대에 들어와 일반서민 사이에 확산되었다. 노천 바닥에 돛자리를 깔고 자리를 마련하여 먹고 마시면서 춤추고 노래하는 지금과 같은 형식도 에도 시대에 에도, 오사카, 교토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한 서민의 꽃놀이 풍속을 계승한 것이다. 또 주고쿠(中國), 긴키(近畿), 간토(關東) 지방에서는 음력 3월 3일이나 4일, 산에 올라 음식을 먹는 형태의 꽃놀이 행사를 가졌으며, 그 외의 지방에서도 벚꽃이 피는 시기에 각각 지역의 특성에 알맞은 벚꽃 축제 행사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일본 전국에 벚꽃 축제 명소가 많지만 최고로 꼽히는 3대 명소를 소개하면, 먼저 나가노현의 다카토조시(高遠城址) 공원을 들 수 있다. '천하제일의 벚꽃'을 자칭할 정도로 성터 유적 안이 고허간(小彼岸 : 벚꽃나무 품종) 벚꽃은 가히 일색이다. 폐성이 된 성터 유적지에 메이지 8년부터 심기 시작한 벚꽃나무가 약 1,500그루나 되며 그 담홍색의 청순가련한 꽃은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다. 다음으로 아오모리현의 히로사키(弘前) 공원을 들 수 있다. 히로사키 공원에는 히로사키성의 유적이 있으며, 성을 빙 둘러 파놓은 도랑 양쪽에 소메이요시노(染井吉野)를 비롯하여 성 전체적으로 약 5,000그루의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다.

1882년경 심어진 소메이요시노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벚꽃나무이며 지금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라현의 요시노야마(吉野山)는 예로부터 벚꽃의 명소로 알려져 있으며, 그 종류는 약 200여 종으로 약 3만 그루의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다. 벚꽃 종류를 살펴보면 소메이요시노가 전국적으로 가장 널리 분포하고 있다. 벚꽃의 개화전선에 인용되는 대표적인 벚꽃으로, 메이지 초기에 도쿄의 소메이(豊島區) 식물원에서 요시노 사쿠라(吉野櫻)라는 이름으로 팔기 시작하여 후에 소메이요시노라고 명명된 2종의 교잡종이다. 이 벚꽃의 꽃말은 뛰어난 미인, 정신적 아름다움이다.³⁸⁾

② 가부키(歌舞伎)

가부키는 글자 그대로 노래와 춤과 연기가 어우러진 종합예술로 17세기 초 에도 시대에 발전한 고전극이다. 초기에는 노래와 춤을 함께 하며, 여자 배우도 출연했으나 점차 남자 배우들만의 연극으로 변했다. 귀족과 무사 계급의 사랑을 받은 노(能)나 교겐(狂言)과 달리 서민의 애환을 담아온 가부키는 대중의 연극으로 사랑받았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매료되어 인기가 많다.³⁹⁾ 가부키 배우는 큰 인기를 누리며 직업을 대물림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큰 자랑으로 생각했다.

노, 교겐과 함께 현존하는 고전연극으로 일본의 전통 예술극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가부키(歌舞伎)는, 에도 시대 초기에 나와 중기에 완성된 일본의 대표적인 서민연극으로, 오늘날에도 다른 전통극보다 많은 애호가들을 가지고 있다. 관객들은 도시락을 먹어가면서 연극이 시작되는 것을 기다리며 매우 즐거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가부키의 특징은 연기자가 모두 남성이라는 점이다. 오야마(女形)라 해서 남자 배우가 여자 역할을 하는데, 국제적으로도 가부키 특유의 무대, 배우의 독특한 화장술, 배우가 남자만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1600년을 전후하여 이즈모노 오키니(出雲阿國)라는 여자 예능인이 기발한 복

38) 공의식 외(2005). 새로운 일본의 이해 (다락원) p. 53

39) 김태영 외(2010). 일본문화 이야기 (도서출판 보고사) p.46

장으로 무대에 나와 노래와 춤, 그 사이에 촌극을 넣은 선정적이고 화려한 쇼를 펼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를 오키니 가부키라 하는데, 이 인기에 편승하여 여성 중심의 극단이 생겨나고 전국적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매춘과 풍기문란을 야기하여 막부는 여자 예능인의 출장을 금하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후 여자 대신 미소년을 내세우는 이른바 와카슈(若衆) 가부키를 상연하자, 이번에는 남색이 유행하여 막부는 이를 다시 금하게 된다. 그 후 1653년 앞머리를 자른 성인 남자 배우가 사실적인 연기를 한다는 조건하에 막부의 허가를 받아 오늘날과 같은 가부키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가부키 배우의 과장되고 형식화된 움직임은 무대 전체와 어우러져 하나의 양식미를 낳고 있다. 연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 연기자가 얼굴 표정과 동작을 잠시 정지하여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장면을 연출한다. 이를 미에(見得)라 하여 가부키의 회화미와 양식미를 잘 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구마도리(隈取り)라 하여 연기자가 표정을 강하게 보이기 위해 얼굴에 여러 종류의 모양을 그려넣는데 대개 적색 계통은 선인이며, 청색 계통은 악인으로 연기한다.

무대구성은, 무대의 왼쪽에는 가부키의 반주 음악을 하는 계자(下座)가 있고, 샤미센(三味線 : 현이 3개인 일본 고유의 현악기)과 나가우타(샤미센의 반주로서 샤미센 음악이 독립해서 생긴 예술적 가곡)가 연주된다. 무대는 회전 무대로 객석 쪽에서 보면 무대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배우를 태운 채 움직여 재빨리 다음 장면으로 바뀐다. 일일이 막을 내리거나 올릴 필요가 없고, 배우가 무대와 함께 등장하고 퇴장하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재미있다. 또한 하나미치(花道)라 하여 무대에서 객석을 향해 직각으로 돌출된 형태의 길이 뻗어 있는데, 배우의 퇴장뿐 아니라 무대의 일부로서 강이나 집의 복도 구실을 하기도 한다.

가부키는 음악극인 동시에 무용극으로 대사와 동작에 독특한 리듬감이 요구되며 일본적인 생략, 과정, 형식화된 움직임이 융합되어 근대적 연극과는 성격이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주제는 귀족이나 무사의 세계를 그린 것과 서민 생활을 묘사한 것 두 종류가 있으나, 배우가 하는 대사는 고어(古語)이므로 일

본인조차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이다. 현재는 대사의 현대어 해설과 내용의 역사적 배경을 해설하는 해설자가 따로 있으며, 외국인을 위해 영어 설명도 첨부해주는 실정이다.⁴⁰⁾

③ 다도(茶道)

다도는 중국 당나라에서 일본으로 전파된 것으로, 일본 상류층에서 즐기던 의식이다. 이후 승려와 무사들에 의해 발전한 일본의 다도는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것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차를 준비하며 마시는 과정 모두가 형식화되어 있는 예법이다. 다도에는 차를 끓여 대접하는 의식 이상의 것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며, 폭넓은 지식과 섬세한 감수성이 요구되는 심오한 종합 예술로 인식되고 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차를 음미하는 일본의 다도는 일본인의 생활 속에 깊이 스며 있는 대표적인 전통문화이다. 차의 역사를 보면 일본에 대륙의 차가 전래된 시기는 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차가 본격적으로 시음된 것은 무로마치 시대 선종의 승려들 사이에서 정신수양과 약용으로 마시기 시작한 것이 일반화된 차의 시작이다. 다도의 시조로 불리는 무라타 주코(村田珠光)는 차선일미(茶禪一味)의 경지를 주장하였고, 작은 다실 속에서의 마음의 수양을 중시한 다케노 조오(武野紹鷗)에 이르러 일기일회(一期一會 : 차 모임의 주인과 손님의 마음가짐으로, 주인은 손님에 대해 손님은 주인에 대해 일생에 한 번밖에 만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성의를 다하는 것)의 다도윤리가 생겨났다.

다도의 예법은 주인이 우아한 찻잔에 좋은 차를 끓여 대접하는 방법과 이를 받아 마시는 손님의 마음가짐으로 이루어진다. 주인은 다다미 4장반이 기준인 다실과 다실의 정원인 로지(路地 : 다실의 뜰을 다도정신에 맞게 변형시킨 정원)를 비롯하여 차 마실 때 나오는 간단한 요리인 가이세키 요리와 차 도구의

40) 공의식 외(2005). 새로운 일본의 이해 (다락원) p. 60

준비 등에 세세한 주의를 기울인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손님을 접대하는 정성이라고 한다. 손님 또한 다도의 예법에 어울리는 복장과 태도를 갖추어야 하지만,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주인의 심혈을 기울여 접대하는 정성에 상응하는 마음가짐을 갖추고 임하는 자세이다.

④ 일본의 의복

전통적인 일본 옷을 가리켜 기모노라고 한다. 원래 ‘입다’라는 ‘기루’와 물건이라는 ‘모노’가 합쳐진 말이다.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서양식 옷, 양복에 대한 전통의상으로 한복이라 하듯이 기모노는 와후쿠라고도 한다.

아스카 시대에 중국 당문화의 영향을 받은 시기로 의복령이 정해져, 신분계급에 따라서 예복·조복·제복 등으로 정해졌다. 헤이안 시대에는 일본 독자적인 색상과 형태가 정해져 일본 의복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잡한 시기로 귀족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에도 시대에는 현대 기모노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생겨 염색 기술, 옷의 정교함 등의 많은 발전이 있던 시기이다.

기모노는 입는 목적에 따라서 옷감의 종류, 모양, 색상이 다르고, 기혼여성과 미혼여성, 그리고 중요한 자리인지, 가벼운 외출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⁴¹⁾ 또한 기모노는 같은 모양의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특징 때문에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고 입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려 시치고산(7, 5, 3세를 기념하는 명절), 결혼식, 졸업식 같은 특별한 날에만 입으며 여름이나 축제 등의 특별한 날에는 유카타라고 하는 간편하고 가벼운 평상용 기모노를 입는다고 한다.

⑤ 일본의 음식

일본 요리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주 요리 재료로 생선이나 어패류가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육류를 먹기 시작한 것도 19세기 후반부터여서 이전에는 미소(된장), 낫토(발효 콩), 쇼유(간장), 두부 등의 콩 요리로 영양소를

41) 김태영 외(2010). 일본 문화 이야기 (도서출판 보고사) p.65-66

섭취했다. 사계절이 분명하기 때문에 계절 음식이 발달했고, 재료 자체의 담백한 맛을 중요시한다. 음식 자체는 물론 식기의 시각적인 면도 중요시하여 색과 모양을 보기 좋게 다소곳이 담은 것이 일본 요리의 특징이다.

일본 음식은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일본 음식의 단어는 우리 식생활에도 뿌리내린 일본 음식문화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신선하고 정갈한 맛이 특징인 일본 음식은 개운한 맛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호에도 맞아 기성세대는 물론 신세대의 외식문화에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섬으로 이루어져 사계가 분명한 일본인의 식생활은 계절에 민감해 싱그러움의 느낌을 주는데, 지리적 특성상 육류보다는 생선류의 음식이 발달한 것도 일본 요리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조리법 또한 향신료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료의 고유의 맛을 최대한 살려 담백한 맛과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제공한다. 이러한 일식 요리의 시각적인 매력은 다양한 재료와 풍부한 계절 감각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시각적인 즐거움은 식기와 공간미에 있다. 일본 식기는 재질과 형태가 다양해 음식을 연출하는 데 있어 장점을 갖고 있다. 담을 때도 공간의미를 충분히 고려한다. 무조건 많이 담은 게 아니라 색과 모양을 보기 좋게 담은 것이 일본 요리의 특징이다.

식사를 할 때는 바른 자세를 취하고 지나치게 소리를 내지 않도록 유의하며 작은 접시에 음식을 덜어 먹는다. 밥, 국, 반찬 순으로 뚜껑을 열고 뚜껑은 상의 왼편에 놓는다. 전체 요리를 먹은 후 밥을 먹는다. 밥은 양손으로 밥공기를 들어 왼손에 놓고 오른손으로 먹는다. 국그릇도 같은 방법으로 드는데 국물을 마시고 젓가락으로 건더기를 먹는다. 상을 물린 후에는 후식으로 과일이나 생과자를 먹고 차를 마신다. 차는 두 손으로 찻잔을 들고 왼손으로 찻잔을 받친 다음 오른손으로 찻잔을 잡고 소리 없이 마신 후 뚜껑을 덮는다.

3) Foreground 맥락 분석

① 일본민요의 특징

일본에서도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요는 양국 모두 고대부터 서민들의 생활 속에서 전승되어 온 대표적인 노래를 가리킨다. 한국에서는 보편적으로 ‘민요’라고 부르는데, 일본에서는 민요를 ‘후조쿠우타(風俗歌, 풍속가)’, ‘구니부리(國振, 국진)’, ‘사토우타(俚謠, 이요)’, ‘이나카우타(田舎唄, 전사패)등으로 불린다.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어요(魚謠)와 관련한 민요들이 많이 전승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민요는 모두 사회경제적인 발전에 힘입어, 점차 직업적인 소리꾼들에 의해 불리게 되면서 음악적으로 좀 더 세련미를 더해지게 된다. 그리고 민요 선율이 여러 다른 장르 음악들에 포함되어 새로운 음악 형태로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일본의 민요 연주형태는 일정한 틀 안에서 불리는 노래가 아니고 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불리는 노래이기 때문에 대부분 반주악기가 수반되지 않으며, 또한 일정하지 않다. 즉 부르는 창자에 따라 혹은 불리는 지역에 따라 민요의 길이, 선율 형태 등이 조금씩 다르게 불려지고, 연주 형태는 독창, 제창, 매기고 받는 방식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본의 민요 종류는 지역별, 기능별 혹은 구성형태에 따라, 수많은 종류의 민요들이 전해져 오고 있다. 즉 한국과 일본은 각 지방별로 많은 민요가 전해져 오고 있고, 이러한 노래들은 그 노래가 지닌 기능에 따라 노동요, 유희요, 의식요 부녀요 등으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일본의 많은 민요들은 여러 분류방법에 의해 분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요의 기능적인 측면에 따라 구분하는데, 그 이유는 노래하는 목적 혹은 장소에 따라 음악적 형식이나 가사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분류법은 학자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문화부가 민요를 노동요(勞動謠), 제가(祭歌) 및 축가(祝歌), 무요(舞謠), 연향요(宴享謠), 가타리모노(語物, 어물) 그리고 와라베우타(童唄, 동패) 이상 6가지로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민요를 구분하고 있다.”⁴²⁾

42) 양종모 외(2000). 21세기 한국 전통음악 비교 교수·학습 자료 개발연구 : 한중일 전통음악 중심으로 p.168-169

② 일본민요 ‘벚꽃’의 배경

이 곡은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민요이며, ‘미-파-라-시-도’로 이루어져 ‘미야코부시 음계’가 나타난다. 우리나라 대중음악 중에는 일본 5음 음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많으며, 그 중 흥남파의 ‘봉선화’가 유명하다. 이 노래에서는 “벚꽃나무가 너무 예뻐서 마치 구름 또는 안개처럼 보인다”라는 가사를 가지고 벚꽃이 만개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⁴³⁾

③ 일본민요 ‘벚꽃’ 내용

“에도시대(1603~1868)부터 전해 내려온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노래로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다.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 푸치니가 <나비부인>의 제 1막에 삽입하기도 하였다.”⁴⁴⁾



[그림 IV-3] 일본의 벚꽃

④ 일본민요 ‘벚꽃’의 음계 이해

< 악보 > 일본민요 ‘벚꽃’의 음계



43) 서진주(2011). 다문화주의에 근거한 아시아민요 지도 방안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p.32

44) 조효임 등(2006). 다문화 수업을 위한 세계의 노래 (서울 : 태림출판사) p.89

벚꽃의 음계는 일본의 민요음계를 쓰지 않고, 음계에 반음이 2번 포함되는 미야코부시 음계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음인 ‘미’와 ‘시’가 주요선율을 이루며 ‘미’음으로 종지를 하고 있다. 일본의 민요는 선율적인 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계명창을 하도록 지도한다.

⑤ 일본민요 ‘벚꽃’의 리듬 이해

벚꽃의 리듬은 4박자 계통의 2분박을 중심으로 하는 리듬으로 되어있다. 우리 민요가 3분박 구조와 장단의 구조에 따라 리듬이 정해지는데 비해 일본 민요는 가사에 의해 리듬이 나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생들에게 주요 리듬을 음악음절 읽기로 익히게 하여 여러 번 함께 읽음으로써 악곡의 리듬에 익숙해지도록 한다.⁴⁵⁾

<악보> 일본민요 ‘벚꽃’ 악보

1. 벚꽃 이라 벚꽃 이라 산 속 에 도 들 판 에 도
 월어 꽃 이라 벚꽃 이라 노 야 마 모 들 판 에 도
 발음 사 쿠 라 사 쿠 라

2. 멀 리 바 라 보 - 니 안 개 인 지 구 름 인 지 아 침 향 기
 미 와 타 스 카 기 - 리 카 스 미 카 쿠 모 - 카 아 아 사 히 니
 미 와 타 스 카 기 - 리 카 스 미 카 쿠 모 - 카 아 아 사 히 니

3. 퍼 지 - 베 다 같 이 모 여 서 꽃 늘 이 - 가 자
 니 오 - 우 사 같 이 모 여 서 꽃 늘 이 - 가 자
 니 오 - 우 사 같 이 모 여 서 꽃 늘 이 - 가 자

45) 서진주(2011). 다문화주의에 근거한 아시아민요 지도 방안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p.35


4)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① 단원 교수·학습 계획

단원명	차시	주요 내용 및 활동
I. 노래 부르기	1	일본 민요인 '벚꽃'을 이해하고 원어로 노래할 수 있다.
	2	일본의 전통 공연 예술인 '가부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② 본시 교수·학습 과정안

과목명	음악	학년-학기	중학교 1학년	대단원	I. 노래 부르기		
소단원	4. 다른 나라(아시아) 민요			학습주제	일본 음악과 문화의 특징 이해, 원어로 노래 부르기		
차시	1 / 2	교과서 쪽수	세광음악 p.46	적용모형	가창	교실환경	PPT, 교과서 준비
학습목표	1. 일본의 음악과 문화를 이해하고 그 특징을 살려 노래 부를 수 있다. 2. 일본말의 가사로 노래 부를 수 있다.						

단계	맥락적 요소	주요 학습 내용	교수 활동	시간
도입		전시 학습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 학습한 제재곡을 확인한다. 	10분
	Middle ground	동기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의 벚꽃축제에 관한 사진과 설명을 통해 일본의 생활문화를 소개한다.  <p>벚꽃은 일본의 국화로 사쿠라라고 부른다. 오키나와에서 3월 초를 시작으로 해서 본토에서는 3월 하순부터 4월에 걸쳐 북상하면서 꽃을 피운다. 꽃이 피고 약 1주일이면 만발하는데, 이때가 되면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꽃을 감상하면서 연회를 갖는데 이것을 꽃놀이(花見 : 하나미)라고 한다</p>	

Middle ground

활동 2

- 일본의 특징적인 문화를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 소개한다.



전통적인 일본 옷 '기모노'
(p.48참고)



전통문화 '다도'
(p.47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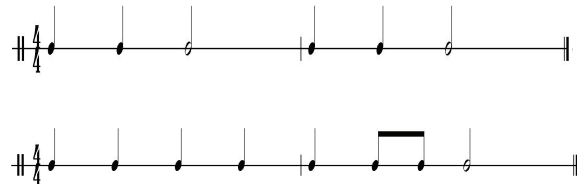
- 일본 음악에서 널리 쓰이는 전통 악기에 대해 소개한다.



고토 : 나라 시대(710~794)에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현은 가야금의 안죽과 비슷한 주로 받치고 쓰메라는 골무를 끼고 부좌를 틀고 앉아 연주한다. 현은 13줄로 명주실을 사용한다.



5분

			샤미센 : 중국의 삼현금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름과 같이 세 줄을 가진 현악기이다. 서정적이고 서사적인 노래의 반주 악기로 널리 사용되며 일본의 음악극인 가부키의 반주에도 쓰인다.	
Fore ground	활동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보를 보고 박자와 조성을 설명한다. ▪ 일본 민요 '벚꽃'의 리듬을 설명하고 익히게 한다. (4박자 계통의 2분박을 중심으로 하는 리듬제시)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아노 선율에 따라 계이름을 불러보게 한다. ▪ 2마디씩 한국어로 가사를 붙여 불러보도록 한다. ▪ 원어로 읽어보기 전에 뜻을 이해하도록 한다. 사쿠라 : 벚꽃 / 카스미 : 안개 / 쿠로 : 구름 ▪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악보를 보고 부르게 한다. 		
정리	학습내용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목표가 달성 되었는지 확인해본다. 	5분	
	형성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T를 통해 오늘 배운 내용을 퀴즈나 문제를 풀어보게 한다. 		
	차시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전통 공연 예술인 '가부키'에 대해 차시 예고한다. 		

나. 베트남 민요 : 리 디아 짜임 보

1) Background 맥락 분석

① 베트남의 지리적 특징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에 있는 나라이다.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외국의 침략과 지배를 자주 받아오다가 1884년에 프랑스 식민지가 되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편입되었다.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독립을 선언하고 베트남을 중심으로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발족시켰다. 정식명칭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이다.

“북쪽은 중국과, 서쪽은 라오스 및 캄보디아와 접하고 동쪽은 바다를 면하고 있다. 베트남의 동쪽 해안은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면서 톤킨만, 남중국해, 보르네오해, 시암만과 접해있고, 남북으로 긴 해안선은 무려 3,444Km에 달한다.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외세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베트남은 1954년까지 정치적 혼란기를 맞게 되었다. 1954년에는 북베트남의 공산당정권이 북베트남에서 프랑스 식민세력을 완전히 폐퇴시킨 후, 베트남은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갈라졌다. 남과 북으로의 분단은 남과 북사이의 20여 년에 걸친 긴 전쟁을 가져왔다. 통일전쟁 중 남베트남의 공산화를 우려한 미국이 1961년 참전하였으며 한국과 필리핀·타이·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도 지원군을 파병하였으나, 구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은 북베트남이 1975년 사이공을 함락시킴에 따라 전쟁은 북베트남의 승리로 끝이 났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 공산화를 이룬 나라이다. 한국과는 1992년에 미국과는 1995년에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행정구역은 하노이, 호찌민, 다낭, 하이퐁, 켄터의 5개 직할시와 59개의 성(省)으로 이루어져 있다.”⁴⁶⁾

② 베트남의 종교적 특징

베트남의 종교는 뒤섞여 있는 다양한 종교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불교이며, 국민의 약 80%가 불교도(대승불교)다. 불교가 어느 무렵에 전래했는가 하는 것에는 여러 학설이 있지만 11~13세기의 리 왕조, 13~15세기의 쩐 왕조에서 역대 황제의 대부분이 선사이고, 국교로 보

46)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 (검색일자: 2012. 11.29)

호했기 때문에 점차 민중에게 침투되었다고 한다. 이후 15~18세기의 레 왕조에 이르러서는 유교쪽이 우세를 차지했고, 현재도 사람들의 생활 관습이나 사고방식의 밑바탕에서 유교적인 영향을 강하게 볼 수 있다.⁴⁷⁾

불교 다음으로 신도수가 많은 것은 로마 가톨릭, 개신교 순이다. 그 외에 신흥종교도 있는데 신흥종교를 통해 베트남의 독특한 면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까오다이교는 불교, 로마 가톨릭교, 개신교와 토속종교가 혼합된 유일신 신앙이며, 호아하오교는 베트남 남부에서 기원한 불교에 바탕을 둔 신흥 종교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종교가 함께 숨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베트남은 과거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었지만 예로부터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믿는 종교가 중국, 인도의 영향을 받은 불교였기 때문에 불교나 유교만은 탄압하지 못했다. 현재는 제한적인 종교 활동은 허용되고 있는데, 집회는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선교는 불법이다. 이는 공산주의 국가의 종교 정책이 탄압 정책에서 종교를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실용 정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③ 베트남의 음악적 특징

베트남의 음악은 세 지역, 북부(베트남어: Bắc), 중부(베트남어: Trung), 남부(베트남어: Nam) 지방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북부 지방의 전통 음악은 베트남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음악이고, 보다 전통적이며 엄격한 형식을 가진다. 중부 지방의 전통 음악은 우울한 멜로디 등 참파 문화의 영향을 보여 준다. 남부 지역의 음악에서는 자유방임적인 삶의 태도가 묻어난다.

“베트남 음악은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고, 인도나 타이, 크메르 등으로부터의 영향도 있으나, 베트남 독자적인 악기나 음악도 적지 않다. 단바우 내지 단독후옌(탄독현-彈獨絃. 금속현을 하모닉 주법으로 튕겨서 장력을 조정하면서 여운을 미묘하게 변화시키는 1현금)이나 단다이(3현 각형-3絃角型 류트) 등의 악기는 그 밖의 지역에 없는 유일한 것이다. 예술음악에는 나낙(아악-雅樂), 극음악, 소-중(小中) 편성의 기악 앙상블, 불교, 도교의 의식음악이 있다. 주요 악기는 단트라뉴(16현), 단구예(월금), 티바(비파), 단코(호궁-胡弓), 카이사오(호궁) 등이다. 민속음악은 산

47) 양원석(2008). 세계를 간다-베트남 (랜덤하우스출판사) p.397

지에 거주하는 많은 소수 민족이 동남아시아 군도(群島)와 공통하는 악기를 가지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음계는 안헤미토닉의 5음 음계가 많고, 언어의 특징을 반영한 선율을 사용한다. 다음성(多音性)이나 폴리리듬도 때때로 볼 수 있다.”⁴⁸⁾

2) Middleground 맥락 분석

① 베트남의 교통 ‘씨클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삼륜차로, 자전거형과 오토바이 엔진을 단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베트남의 근대적 교통 체계는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수확한 농산물을 옮길 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였지만, 베트남 전쟁 이후 심하게 파손되어 현재까지도 재건이 계속되고 있다. 도로는 대부분 평지와 도시 근교에 집중되어 있으며 산간 지역이나 중부 고원, 국경 지역이나 메콩 강 유역 등의 도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1980년대 시장이 개방되면서 차량과 오토바이가 급속하게 늘어났으며, 아직까지는 오토바이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다. 최근에 정비된 도로의 교통법과 신호 체계도 오토바이 위주로 정착되면서, 오토바이는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베트남의 근대적 교통 체계는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수확한 농산물을 옮길 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였지만, 베트남 전쟁 이후 심하게 파손되어 현재까지도 재건이 계속되고 있다. 도로는 대부분 평지와 도시 근교에 집중되어 있으며 산간 지역이나 중부 고원, 국경 지역이나 메콩 강 유역 등의 도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1980년대 시장이 개방되면서 차량과 오토바이가 급속하게 늘어났으며, 아직까지는 오토바이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다. 베트남의 오토바이는 약 2천만 대에 달하며, 거의 한 가구당 한 대꼴로 오토바이를 갖고 있다. 또한 최근에 정비된 도로의 교통법과 신호 체계도 오토바이 위주로 정착되면서, 차가 못 들어가는 도로는 있어도 오토바이가 못 들어가는 도로는 없을 만큼 오토바이는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대중교통으로는 씨클로, 썬우 외에도 버스,

48)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 파플러음악용어사전(삼호뮤직) (검색일자: 2012. 12. 1)

택시, 지하철이 있지만 노선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으며, 장거리 교통 수단으로는 철도와 항공이 있다.

② 베트남의 요리 ‘짜’

베트남의 음식은 태국, 중국 음식과 함께 아시아 3대 음식으로 꼽힌다. 거의 모든 음식 재료를 구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 덕분에, 베트남의 요리는 천 년 이상 계속된 문화만큼이나 전통 있고 다양하게 발달했다. 신선한 재료의 선명한 색 대비와 풍부한 식감, 다양한 향신료로 깊은 맛을 내는 베트남 음식은 건강에도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에서도 베트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음식이 쌀국수 ‘짜’다. 북부의 하노이에서 대중적으로 먹었던 짜는 현재는 베트남전역에서 가장 친숙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양한 종류의 쌀국수를 먹는 베트남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③ 베트남의 악기

베트남은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고, 인도나 타이 등으로부터의 영향도 있으나, 독자적인 악기와 음악도 적지 않다. 베트남에만 있는 고유의 악기로 독특한 특징을 지니는 악기가 있는가 하면 외국에서 도입되어 현지화 된 악기도 있다. 몇 가지의 대표적 악기의 내력을 알고 음악을 들으면 느껴지는 음률의 맛도 다르게 느껴진다.⁴⁹⁾ 악기의 특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Dan Ty ba (단띠바)는 출처는 중국인데 중국에서 Pipa라고 불리며 일본에서는 Biwa라고 부른다. 베트남에서 생긴 악기는 아니지만 단띠바는 베트남 민족의 스타일을 지녀 베트남 사람의 정서를 독특하게 표현한다고 한다.

Dan Day (단다이)는 베트남의 전통 음악인 까주(Ca Tru: 한국 판소리와 비슷)를 부를 때 같이 연주하는 악기로 남자들만 사용한다. 특수한 기술로 인해서 음정이 정상보다 낮아지며 따뜻한 소리를 지니는 이 악기는 다른 악기와 같이 연주하면 그 악기의 소리를 더 좋게 해준다. 현재 시

49) 조재현 외(2004). 베트남 들여다보기(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p.339-340

를 읊을 때 단다이를 연주하기도 한다.

Dan nguyet (단 우엣)은 달악기라는 뜻으로 달처럼 둥그랗게 생긴 모양에서 유래했다. 베트남에서 11세기경부터 등장했는데 지금까지도 베트남 사람의 음악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로 남자가 연주한다.

Dan T'rung (단 터룽)은 서중부고원에서 보편적인 악기로 12~16개의 대나무조각으로 만들어진다. 이 악기의 소리는 두텁고 크지 않지만 독특하다. 들어보면 샘물이 흐르는 소리, 폭포가 쏟아지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숲의 소리 등을 느끼는 듯하다. 19개 대나무를 사용한 것의 경우 도에서 솔까지 2옥타브 반의 소리가 나온다.

Dan da (단다)는 베트남의 가장 오래된 악기로 길고 짧으며 두껍거나 얇은 돌로 만들어진다. 길고 크며 두꺼운 돌은 저음을, 짧고 작으며 얇은 돌은 고음을 낸다. 고고자료에 의하면 돌악기는 약 3000년 전부터 등장했다. 1990년대 초에는 200개의 돌 악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옛사람들은 돌 악기의 소리가 음의 세계와 양의 세계, 인간과 신령,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는 것이라고 믿었다고 한다.

3) Foreground 맥락 분석

① 베트남 민요의 특징

“60여 소수민족에 의해서 연주되고 있는 베트남의 민속음악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베트남의 모든 종족들은 하나 같이 ‘햇 루(hatru)’라는 자장가, 동요의 일종인 ‘햇트레엠(hattreem)’, 농요의 일종인 ‘호(ho)’같은 성악곡을 즐기고 있다. 베트남의 북쪽 지방에서 남녀가 경쟁적으로 번갈아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이런 노래를 ‘트롱 쿠안(trong quan)’이라고 한다. 남녀가 트롱 쿠안을 번갈아 부를 때 즉흥적으로 노래의 가사와 선율을 지어내야 하는데, 제대로 노래의 가사의 선율을 지어내지 못하는 쪽이 지게 되어 있다. 잘 알려진 베트남 민요로는 ‘어린이들의 축제(Tết Trung)’, ‘추보이꾼어판돈(Chúvoi con o’uBan Dôn)’, ‘호빠리(Hòbali)’등이 있다.”⁵⁰⁾

② 베트남민요 ‘리디아 빠임 보’의 배경

베트남 음악은 지역에 따라 북부·중부·남부 지방으로 나뉘며, ‘리 디아 빠임 보’는 ‘빵 접시를 들고’라는 뜻의 베트남 남쪽 지방의 전통적인 민요이다. 남부 지방 민요는 리듬이 보다 자유로우며 남부지방을 제외한 다른 지방의 민요는 전통적이고 엄격한 형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곡의 음계는 ‘도-레

50) 박창호(2006). 세계의 민속음악 (서울 : 현암사) p.112

-파-솔-라' 로 반음이 없는 5음 음계로 간혹 비화성음으로 '미'가 사용되며, 오랜 중국의 지배로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에 반해 중국어가 아닌 베트남어를 사용한 것이 이 곡의 특징이다.

③ 베트남민요의 음계

< 악보 > 베트남 민요의 5음 음계



음계는 반음이 없는 5음 음계이지만 경과음이나 장식음을 포함하면, 7음 음계라고 할 수 있다. 전통 음악에 따라 임시표가 붙게 되는 박 선법과 남 선법이 있는데 '박' 선법은 반음이 없는 5음 음계와 7음 음계 모두 쓰이며 남 선법과 대조적으로 흥겨움이나 엄숙함을 나타내는 음악에서 사용된다. '남' 선법은 반음이 없는 5음 음계에서 A#과 D#이 사용되어 슬픔이나 조용함을 나타내는 음악에서 쓰이는 선법이다.

4)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① 단원 교수·학습 계획

단원명	차시	주요 내용 및 활동
4. 음악으로 아시아를 여행해요.	1	베트남 민요인 ‘리 디아 빠임 보’를 이해하고 부를 수 있다.
	2	베트남의 대표적인 전래 동화, 설화 등을 음악으로 표현.

② 본시 교수·학습 과정안

과목명	음악	학년-학기	중학교 1학년	대단원	4. 음악으로 아시아를 여행해요.		
소단원	베트남 - 리 디아 빠임 보			학습주제	베트남 음악과 문화의 특징 이해, 악곡의 특징을 살려 노래 부르기		
차시	1 / 2	교과서 쪽수	현대음악 p.43	적용모형	가창및 전체학습	교실환경	PPT, 교과서 준비
학습목표	1. 베트남의 음악과 문화를 이해하고 그 특징을 살려 노래 부를 수 있다. 2. 베트남 민요의 특징을 생각하며 노래 부를 수 있다.						

단계	맥락적 요소	주요학습 내용	교수 활동	시간
도입		전시학습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 학습한 제재곡을 확인한다. 	10분
	Middle ground	동기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에 대해 생각나는 것들에 대해 질문한다. 	
		제재곡 학습목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div style="background-color: #ffffcc; padding: 5px;"> 1. 베트남의 음악과 문화를 이해하고 그 특징을 살려 노래 부를 수 있다. 2. 베트남 민요의 특징을 생각하며 노래 부를 수 있다. </div>	
전개	Back ground	활동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의 위치 및 종교적 특징, 음악적 특징에 대해 설명한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의 동부에 있는 나라로 정식 명칭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베트남의 음악은 지역에 따라 북부, 중부, 남부 지방으로 나뉜다. 남부 지방의 민요는 전통적이며 엄격한 형식의 다른 지방의 민요에 비해 보다 자유롭다.	5분

<p>Fore groun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민요의 특징에 대해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랜 중국의 지배로 중국의 영향이 크다. - 5음 음계 : 반음이 없는 5음 음계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곡의 앞에는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라오, 다오라는 전주곡이 있다. 	<p>5분</p>
<p>Middle ground</p>	<p>활동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의 생활문화를 그림, 사진을 통해 보여준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ata-bbox="546 793 865 1038">  <p>베트남의 교통 '씨클로' (p.59 참고)</p> </div> <div data-bbox="891 793 1218 1038">  <p>베트남의 요리 '띠' (p.60 참고)</p>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전통적인 악기를 소개한다. 	<p>5분</p>

			<p>‘트룽’ : 베트남의 전통악기인 ‘트룽’은 실로폰과 유사하며 다양한 소수 민족들의 악기이다. 대나무들을 두 개의 줄에 평행하게 크기 순서대로 묶어 만들고 강이나 폭포의 물을 연상시키는 소리를 내며 이는 고지의 장엄한 경치를 연상시키는 소리라고 한다.</p>	
	Fore ground	활동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보를 보고 주요 구성음을 찾아보도록 한다. ▪ 피아노 선율에 따라 계이름을 불러보고 구성음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어로 읽어보고 곡에 나오는 주요 단어를 읽고 해석하여 뜻을 이해하고 부를 수 있도록 한다. ▪ 교사의 반주에 맞추어 원어로 불러보도록 지시한다. 	
정리		학습내용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한다. 	5분
		형성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운 내용을 문제를 통해 다시 한 번 익힌다. 	
		차시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에 대해 차시예고 한다. 	

다. 중국 민요 : 모리화

1) Background 맥락 분석

① 중국의 지리적 특징

“중국은 아시아 대륙의 동쪽, 태평양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육지 면적은 약 960만km²로 한반도의 약 44배에 달하며, 세계 육지 총면적의 6.5%를 차지한다. BC 221년 진(秦)나라의 시황제가 처음으로 통일을 이루어 중국 최후의 통일왕조인 청(淸)나라에 이어 국민당의 국민정부가 세워졌고, 1949년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다.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이다.

세계 최대의 인구나 광대한 국토를 가진 중국은 국토는 남북 5500km, 동서로 우수리강(江)과 헤이룽강의 합류점에서부터 파미르 고원까지 5200km에 달한다. 북동쪽으로 한국·러시아 연방, 서쪽으로는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 남서쪽으로는 인도·파키스탄·네팔·부탄, 남쪽으로는 미얀마·베트남·라오스, 북쪽으로는 몽골·러시아 연방과 각각 국경을 이룬다. 중국은 이처럼 긴 국경선과 해안선 및 바다에 산재해 있는 섬들로 인해 자연히 주변 국가들과의 영토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육지 국경선을 따라서 북쪽으로는 러시아, 서남쪽으로는 인도, 남쪽으로는 베트남과 이미 무력 충돌을 경험했으며, 일부 도서에서는 상대국들과의 분쟁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동쪽으로는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다오이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두고 일본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⁵¹⁾

이처럼 중국 국토의 광활함은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하는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공간개념과 시간개념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중국의 종교적 특징

중국의 종교는 전통적인 것으로 불교·도교(道敎)·이슬람교가 있으며, 그리스도교가 16세기 이후 들어와 전파되었다. 중국 헌법 제36조에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사회주의국가들이 대개 그러하듯 그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문화혁명 과정에서 사원·교회 등이 홍위병(紅衛兵)에 의해 공격받아, 모든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 이후 중

51) 김태만 외(2011). 쉽게 이해하는 중국문화 (다락원) p.14

교도 과거에 비해 활발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인들도 중국으로 다수 몰려들고 있다. 각종 종교 신도 수는 약 2,000만 명으로, 대부분은 도교·불교 신자이며 나머지는 이슬람교도가 1~2%, 그리스교도가 3% 정도를 차지한다.

③ 중국의 인문환경

중국의 인문환경을 종합적으로 보자면 한국과 상당히 비슷한 면이 많다. 오랜 세월이 걸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한자문화와 유교문화를 공유해왔고 또 근세사에서 열강에 의해 강제로 개방된 것이나 침략당한 것 등 비슷한 면이 많다. 그리고 교육열이 매우 강하다는 것과 관료주도의 강력한 근대화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도 한국과 비슷하다. 중국의 교육제도는 6-3-3-4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한국과 완전히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평준화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초등학교(소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상당히 자유롭고 자율적인 권한을 각 학교에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좋은 학교에 가려는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태에 있다. 60~70년대의 문화대혁명으로 중국의 문화는 많이 붕괴되었지만 80년대 이후 문화를 다시 세우고 창조하기 위한 노력이 다방면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극과 같은 전통극이 다시 부활하고 있고 다양한 현대음악, 현대영화, 현대연극, 현대미술이 조금씩 꽃피고 있다.

④ 중국의 음악적 특징

수천 년의 오랜 역사를 갖고, 뛰어난 전통을 자랑하며 주위의 여러 민족에게 많은 영향을 준 점에서 중국의 음악은 인도·서아시아의 음악과 함께 동양음악의 대표적인 존재이다. 중국음악의 영향을 받은 나라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몽골·베트남 등 여러 나라가 있으며 그 밖의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도 다소나마 영향을 받았다.

중국음악의 특징은, 표현이 간명하고 직절적인 점, 내용이 구체적이고 그다지 추상적이거나 논리적이 아닌 점, 기본적으로는 단선율적이며 5음 음계에 입각하면서도 수시로 많은 선법을 섞어 강약법이 독특한 표현기법을 형성하고 있는 점, 기운차면서도 애수에 찬 폭넓은 표현력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이다.

현대 중국음악에는 몽골인·티베트인·터키인, 서남 중국의 소수민족의 음악도 포함되지만 중심은 역시 한민족의 음악이다.

2) Middleground 맥락 분석

① 중국의 ‘자전거’

중국인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누구나 자전거를 가장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한다. 이처럼 자전거가 생활의 일부가 된 데에는 자전거 타기 권장, 자전거 전용도로 확장 등을 이유로 꼽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의 많은 도시들이 평지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② 중국의 ‘음식문화’

중국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이 음식이 아닐까 싶다. 국토가 넓어서 지역마다 특색 있는 음식이 다양하고, 그들의 긴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요리를 개발, 발전시켜 오늘날 세계적인 요리로 명성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가 광대하니만큼 지역마다 특색 있는데, 크게 4대 요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기름진 맛의 튀김이나 볶음이 많은 베이징요리, 달고 진한 맛의 다양한 요리법을 자랑하는 상하이요리, 맵고 맛이 강하며 향신료를 이용한 쓰촨안요리, 담백한 서양식 조리법인 광둥요리로 나눈다고 한다.

“중국은 광대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음식 재료와 수천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일찍이 중국 특유의 음식 문화를 형성하였다. 체면을 중요시하는 중국인이지만 ‘먹는 일’ 앞에서만큼은 실용주의적인 민족적 특성이 잘 드러난다. 일찍이 중국에는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여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에 부합이나 하듯 중국인은 일상생활에서 먹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계절, 성별, 나이별로 적당한 음식을 가려서 먹으며, 요리할 때는 맛을 내는 데 그치지 않

고 색과 향 그리고 아름다움까지 추구한다. 먹는 것으로써 건강을 챙길 뿐 아니라 삶의 여유와 즐거움을 찾으려 하는 것이다.”⁵²⁾

③ 중국의 ‘붉은색’

중국인은 붉은색으로 민족의 정신과 풍모를 나타낸다. 중국인에게 붉은색은 열정, 도전 등 굉장히 힘 있고 원동력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 중국에서 빨간색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행운을 가져온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역사 속에서도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역사 속에서 붉은 색은 자신감과 특권 그리고 부유함을 나타내고 있다. 권위와 부귀의 상징으로 평민과 차이를 두었다. 붉은색이 쪽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염색기술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화학 염료가 없던 시절 모든 염색은 자연 그대로의 색을 모방하는 것에 있었는데 뜨거운 중국 남쪽지방에서는 붉은색의 꽃이 유독 많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염색이 가장 쉬울 뿐 아니라, 천연의 염색원료 중 가장 아름답게 찾아 낼 수 있었던 붉은색은 고대 중국에서 이모저모로 사용되어 질 수 밖에 없었다.

④ 중국의 ‘경극’

경극은 중국에서 가장 널리 유행하고, 영향력이 큰 연극으로 2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 경극은 노래, 대사, 행동, 무술 네 가지가 결합된 종합예술이다. 일정한 곡조에 따라 연기를 하며 노래를 부르고, 극중 배우들이 대화나 독백으로 대사를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경극의 분장은 매우 독특한데, 얼굴의 화장으로 배역의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 붉은색은 충성스러움과 용감함을 검은색은 직선적이고 솔직한 성격을 흰색은 이기적이고 교활한 성격을 나타낸다.

52) 김태만 외(2011). 쉽게 이해하는 중국문화 (다락원) p.11

3) Foreground 맥락 분석

① 중국 민요의 특징

“중국의 민요 정의 및 연주형태를 보면 고대부터 서민들의 생활 속에서 전승되어 온 대표적인 노래를 말하며, ‘민간가곡’ 혹은 ‘민가’라고 부른다. 그리고 중국의 고대문헌에 따르면, 이러한 민요를 ‘악(樂)’, ‘가(歌)’, ‘풍(風)’, ‘요(謠)’, ‘구(謳)’, ‘성(聲)’, ‘산가(山歌)’, ‘속곡(俗曲)’, ‘이곡(俚曲)’, ‘소조(小調)’, ‘시조(詩調)’ 등 다양하게 부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은 한국의 경우도 ‘민요’라는 명칭이 보편화되기 전에 ‘속곡’, ‘속요’ 등으로 불리어 졌던 점과 공통된다.”⁵³⁾

연주형태는 일정한 틀 안에서 불려지는 노래가 아니고 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불려지는 노래이기 때문에 대부분 반주악기가 수반되지 않은 채 부르고, 연주형태가 일정하지 않다. 즉 부르는 창자에 따라 혹은 불려지는 지역에 따라 민요의 길이, 선율 형태 등이 조금씩 다르게 불려지고, 연주형태는 독창, 제창, 메기고 받는 방식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중국의 민요 종류는 지역별, 기능별 혹은 구성형태에 따라, 수많은 종류의 민요들이 전해져 오고 있다. 즉 각 지방별로 많은 민요가 전해져 오고 있고, 이러한 노래들은 그 노래가 지닌 기능에 따라 노동요, 유희요, 의식요, 부녀요 등으로 나뉘어지기도 한다. 중국의 많은 민요들은 여러 분류방법에 의해 분류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주로 노래의 구성형태에 따라 호자(号子, 호우즈), 산가(山歌, 산가), 소조(小調, 쇼띠오) 등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민요를 구분하고 있다.”⁵⁴⁾

중국민요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와 음악의 고도의 결합성을 가지고 있다. 시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 민요는 인민들의 생활, 정체성이 명확하고 감정이 진지하다. 중국 민요의 가사는 짧고 간단해서 알아듣기 쉽고 특정한 운율을 가지고 있다. 둘째, 표현이 간명하고 직설적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진 5음 음이 넓은 표정을 지니고 있다. 셋째, 중국 민요는 인민들의 내심 세계를 잘 표현하고 있다. 넷째, 중국 민요는 구두성, 즉흥성, 변이성이 있다. 다섯째, ‘모리화’, ‘태호선’, ‘만리장성’, ‘초원정가’ 등의 2박자계가 많다.⁵⁵⁾

53) 서진주(2011). 다문화주의에 근거한 아시아민요 지도 방안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p.31

54) 양종모(2000)외. 21세기 한국 전통음악 비교 교수학습 자료 개발 연구 : 한·중·일 전통음악 중심으로 p.166-167

55) 팽선하(2009). “중국민요와 한국민요의 연구”. 수원대학교 일반대학원 p.5, 재인용

② 중국 민요 ‘모리화’의 배경

‘모리화’는 중국 전역에서 유행하는 민요로 한국민요 아리랑과 같이 가장 널리 알려진 중국민요이다. 노래의 내용은 곡 전체에서 모리화를 찬미하고, 청춘 남녀간의 사랑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노랫말은 각 지역마다 같으나, 선율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하고, 지역에 따라 전혀 다른 노랫말로 불리지기도 한다. 모리화를 다른 이름으로 선화조라고도 부르는데 민간 악기 회곡, 곡예 등에서도 많이 불려진다. 그리고 몇 백여 종의 창법이 있으나 거의 비슷하여 사실 한 종류라고 볼 수도 있다. 음악계에서는 이런 것을 “비슷한 음조”라고도 부른다.

최근 몇 년 동안,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모리화는 원래 세 단락의 가사가 있었는데 노래 순으로 모리화, 인동, 장미가 있다. 1942년, 음악가 허방이 강소성 양주시 소속의 이정시 유허진 우산지역에서 민요를 수집하다가 현지의 유명한 민간예술인을 통해 현지에서 널리 유전되고 있는 이 민요를 수집하게 되었으며 민요 선율과 가사를 하나하나 기록하였다. 1957년, 그는 원래의 선율과 가사에 대한 개편을 통해 세 개 단락의 가사가 모두 한 개 곡조를 사용하게 함으로서 원래 세 가지 꽃을 노래하는 형태로부터 주로 모리화를 노래하도록 하였으며 은은하고 구성진 장음으로 매듭을 지어 점차 사람들에게 친숙한 오늘의 노래로 발전되었다. 1957년, 전선가무단에서 북경에 와서 현대 최초로 악보 형식으로 출범된 모리화를 가지고 회보공연을 진행하였으며 매우 큰 성공을 거두어 후에 음반으로 제작되어 국내외에 널리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③ 중국 민요의 음계

< 악보 > 중국 민요 ‘모리화’의 음계



중국 민요 ‘모리화’에서도 5음 음계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단성 음악 양식의 민요는 5음 음계를 사용한 여러 가지 선법을 사용한다.

위에서 살펴본 중국 민요의 특징을 살펴보았듯이 중국민요는 표현이 간명하고 직설적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진 5음 음이 넓은 표정을 지니고 있다.

< 악보 > 중국 민요 ‘모리화’

한 송이 아름다운 모리 - 화 한 송이 아름다운 모리 -
 원어 好 - 一朵美 - 麗的茉莉 - 花 好 - 一朵美 - 麗的茉莉 -
 발음 하오 이두어 메이 리 디 모 리 - 화 하오 이두어 메이 리 디 모 리

화 가 지 마 다 - 님 지 는 그 옥 한 향 기 의
 花 芬 芳 美 麗 - 滿 枝 杖 又 香 - 又 白 -
 화 쥔 광 네이 리 - 만 쓰 야 요 상 요 빠 이

하 얌 - 꽃 아 름 다 운 꽃 을 친 구 에 게 한 송 이
 人 人 - 夸 誑 - 我 - 來 摘 - 下 送 給 -
 쥔 쥔 - 과 량 - 어 - 라이 짝 어 짝 이 샤 송 래 이

모 내 련 - 다 모 리 화 - 모 - 리 - 화 -
 別 - 人 - 插 茉 莉 花 - 茉 莉 - 花 -
 비 에 련 - 차우 모 리 화 - 모 - 리 - 화 -

4)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① 단원 교수·학습 계획

단원명	차시	주요 내용 및 활동
4. 이웃 나라의 민요와 음악극	1	중국 문화를 이해하고 민요 '모리화' 부를 수 있다.
	2	중국의 경극을 감상하고 극음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② 본시 교수·학습 과정안

과목명	음악	학년-학기	중학교 1학년	대단원	4. 이웃 나라의 민요와 음악극		
소단원	중국 - 모리화			학습주제	중국 문화의 특징 이해하고 가사의 느낌을 살려 노래 부르기		
차시	1 / 2	교과서 쪽수	성안당 p.42	적용모형	가창및 전체학습	교실환경	PPT, 교과서 준비
학습목표	1. 중국의 문화와 중국 민요의 특징을 이해 할 수 있다. 2. 가사의 느낌을 살려 원어로 불러 볼 수 있다.						

단계	맥락적 요소	주요 학습 내용	교수 활동	시간
도입		전시 학습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 학습한 내용을 확인한다. 	5분
	Middle ground	동기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영화 '모리화'를 보여주고 학습할 제재곡과 관련하여 질문해 본다. 	
		제재곡 학습목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1. 중국의 문화와 중국 민요의 특징을 이해 할 수 있다. 2. 가사의 느낌을 살려 원어로 불러 볼 수 있다. </div>	
전개	Back ground	활동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의 지리적 특징 등 주요 특징에 대해 설명한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중국은 옛날부터 문화, 정치, 경제적으로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다양하고 풍부한 음악문화를 이루어 우리나라와 일본,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의 여러나라에 큰 영향을 주었다. 	10분

<p>Fore groun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민요의 특징에 대해 설명한다. - 5음 음계를 많이 써서 단선율적이고 리듬은 짝수 박자계의 뚜렷한 리듬이 일반적이다. - 기운차면서도 애수에 찬 폭 넓은 표현력을 가지고 있다. - 우리나라, 일본, 몽골, 베트남 등 주변 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p>Middle ground</p>	<p>활동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전통문화를 보며 중국 문화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ata-bbox="557 731 872 977">  <p style="text-align: center;">중국의 '붉은색' (p.69참고)</p> </div> <div data-bbox="896 731 1210 977">  <p style="text-align: center;">중국의 '경극' (p.69참고)</p>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전통적인 악기를 소개한다. <div data-bbox="590 1208 1114 1569">  </div> <p> 얼후 : 얼후는 중국 당나라 때부터 연주되어 온 악기로 우리나라의 해금과 생김새와 소리가 비슷하다. 두 줄로 이루어진 현악기지만 풍부한 음역대를 표현할 수 있어 중국 전통극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p>	<p style="text-align: center;">10분</p>

Fore ground	활동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곡 ‘모리화’에 대해 설명한다. 제목인 ‘모리화’는 자스민 꽃을 뜻하며 꽃을 꺾어 친구에게 보내고 싶은 소녀의 마음을 소박하게 표현한 것이다. 자스민 차가 많이 나던 중국 강소 지방에서 찻잎을 따며 부르던 두 박자계의 노동요이다. ▪ ‘모리화’의 구성음이 무엇인지 찾게 한다. ▪ 피아노 선율에 따라 계이름으로 불러보고 곡의 느낌이 어떠한지 질문해본다. 	15분
	활동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절은 한글가사로 2절은 중국어 가사로 읽게 하고 단어의 의미를 가르쳐준다. ▪ 교사의 반주에 맞추어 원어로 불러보도록 지시한다. 	
정 리	학습내용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한다. 	5분
	형성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T를 통해 배운 내용을 퀴즈나 문제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차시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시간에 배울 중국의 전통음악극 경극에 대해 차시 예고한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급변하는 21세기 현대 사회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양한 문화 속에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다문화 교육을 위한 음악교육의 역할과 방법에 대해 많이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효과적인 다문화 음악교육 방법의 부재로 다문화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맥락적 고찰을 통한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을 제안하고 수업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다문화주의와 다문화 교육의 개념, 다문화 음악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맥락적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나라와 학자마다 각자 다양한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러 민족, 인종 집단들이 평등의 원리위에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하여 상호 존중함으로써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이론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구를 통해 음악은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다문화 음악교육이 이루어질 때 각 나라의 음악과 관련된 사회·맥락적 요소들을 계획적으로 다루어 각 나라의 특징을 이해하고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순히 악곡에 대하여 표면적으로 가창, 기악, 창작, 감상 활동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문화적·역사적 배경 즉, 맥락과 함께 이해하면서 표현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맥락적 요소를 고려한 다문화 음악교육 방법을 교수·학습 과정안으로 나타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2007 개정 중학교 1학년의 16종 교과서에 아시아 지역의 민요를 분석하였다.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거주 외국인이 많

은 중국, 일본, 베트남의 민요를 중심으로 수업지도안을 구성하였다. 다문화 수업은 2차시에 걸쳐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하고 1차시 수업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2차시 수업은 차시예고를 통해 배울 내용을 제시하였다.

수업 지도안의 구성은 다른 나라의 민요를 배우기 전에 그 나라의 특징과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도록 맥락적인 요소를 Background, Middleground, Foreground로 나누어 구성해보았다. 각 나라의 Background와 Middleground가 되는 지리적, 종교적, 음악적 특징과 생활문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각 나라의 문화를 먼저 이해하고 Foreground가 되는 각 나라의 민요의 내용과 사용된 음계, 리듬 등을 파악하여 특징을 살려 노래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이러한 맥락적인 요소를 고려한 다문화 음악수업을 통해 다양한 음악문화를 균형 있게 바라보고,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을 것이다.

2. 제언

이번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다문화 음악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직 교사나 예비 교사를 위한 다문화 교육 연구가 필요하다. 앞으로 더욱 다문화 사회로 변화될 현 시점에서 현직 교사들이 느끼는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 문제점 및 기대와 바람에 대해 알아보고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문화적 음악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예비 교사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함께 느끼고 교사 양성 과정에서부터 전문성을 갖출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의 내용과 교사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 상황에 맞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가 필요하다. 다문화 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일회성 행사가 대부분인데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공의식 외(2005). 새로운 일본의 이해. 다락원
- 김범수·김현희·정명희(2010) 알기 쉬운 다문화교육. 양서원
- 김태만 외(2011). 쉽게 이해하는 중국문화. 다락원
- 김태영 외(2010). 일본 문화 이야기. 보고사
- 민경찬 (2008). 동아시아와 서양음악의 수용. 음악세계
- 민경훈 외(2010). 음악교육학 총론. 학지사
- 박창호(2006). 세계의 민속음악. 서울: 현암사
- 석문주 외(2006). 음악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과학사
- 안경식 (2008). 다문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 학지사
- 양원석(2008). 세계를 간다-베트남. 랜덤하우스출판사
- 전인평 외(998). 아시아 음악의 어제와 오늘. 아시아음악학회
- 정형 (2009). 사진 통계와 함께 읽는 일본, 일본인, 일본문화. 다락원
- 조용환(2008). 다문화 사회의 이해: 다문화 교육의 현실과 전망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 이해교육원
- 조재현 외(2004). 베트남 들여다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조효임 외(2006). 다문화 수업을 위한 세계의 노래. 서울: 태림출판사
- 최충욱 외(2009). 다문화 교육의 이론과 실제(개정판). 양서원

2. 학위 논문 및 정기 간행물

- Akuno, E. A.(2001). A Conceptual Framework for Reserch in Music Education Within
a Cultural Context, Universiry of Illinois
- 권덕원(2000). 다문화주의 음악교육론과 국악교육 「음악과 문화」 제2호.
- 권덕원(2004). 학교 음악 교육: 50년의 회고와 전망. 음악교육연구 제27집.

양윤정 외(2009).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방안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양종모 외(2000). 21세기 한국 전통음악 비교 교수·학습 자료 개발 연구:
한·중·일 전통음악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오은순(2007).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연구(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오은순(2008).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연구(I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장인식 (2006). 미국 다문화 교육과 교육과정, 교육과정연구 제24권 제 4호.

장근주(2007). 세계 다문화적 음악교육의 동향 :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캐나다,
일본을 중심으로. 음악교육, 제7호.

강향자(2011).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10학년 음악교과서 분석: 가창영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권자영(2007). 한국적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의 대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김나래(2010). 다문화 음악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방안연구: 고등학교 8종교과
서 아시아 민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영희(2010).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와 교사의 인식 조사: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진영(2011). 다문화 음악교육을 위한 아시아 민요 연구. 석사학위 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철희(2002). 도시 맥락의 재해석을 통한 박물관 계획에 관한 연구: 운니동 근
대사 박물관 계획안에 적용하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모희선(2009). 중등음악교육의 다문화 음악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
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은주(2012). 다문화주의 관점을 통한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2009개정 교육과정
에 의거한 분석 및 수업지도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진주(2011). 다문화주의에 근거한 아시아민요 지도 방안 연구-중학교 1학년
개정교과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손혜원(2008). 미술수업에서 맥락주의(Contextualism)적 접근 방법을 통한 사회
문화 현상 이해 교육, 서울교육대학교.
- 신혜원(2010). 아시아 음악교육을 위한 교재연구 및 개발: 아시아민요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승연(2011). 다문화 음악교육에 관한 중등음악교사들의 인식조사. 석사학위논
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양혜진(2009). 다문화 음악교육을 적용한 교수학습 방안 연구-중학교
아시아민요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어현숙(2010). 다문화 음악교육을 적용한 아시아 민요 지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진희(2009). 중등음악 교육의 다문화 역사적 요소 변천 과정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승하(2009).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황과 다문화 교육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용흠(2010) 맥락주의와 근대건축: 알도로시와 루이스칸의 건축을 중심으로,
박사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이유진(2010). 다문화 음악교육을 위한 아시아 음악 지도방안 연구-중학교 1학
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이숙(2005). 문화 다양성 시대의 음악교육과정 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
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임하영(2010). 다문화주의 교육이론을 활용한 세계 민요 교수-학습방안 연구:
고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인수(2006).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에 대한 다문화주의적 지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푸르나(2010).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가정 자녀의 학교 적응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미애(2011). 효과적인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을 위한 수업 방안 연구: 아시아
민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안나(2008). 엘리엇의 '음악하기'를 적용한 다문화교육 교수-학습방안 연구-
고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민경(2008). 맥락중심읽기 교육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
학원.
- 한정은(2011). 다문화 음악교육 석사학위논문의 경향 분석(1994~2010).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 팽선하(2009). 중국민요와 한국민요의 연구-중국민요 모리화와 한국민요 아리랑
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일반대학원.

ABSTRACT

Design of Effective Multi-cultural Music Class through Contextual Consideration

- Focused on Asian Folk Songs in 2007-Revised Textbooks for First
Graders in Middle School -

Interest and discussion of multi-culture education are on the increase due to rapid-changing Korean society, and importance of music education as a method of multi-culture education is being enhanced. 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n educational method with which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can be clearly understood and expressed by systematically handling contextual factors related to music as a method of effective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The author in this study identified multi-culture education contextual education to indicate that musical expression activities in music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by understanding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s of music rather than superficial music learning activities on music. Then, as a result of analysis of Asian folk songs in the 16 textbooks for the first-graders of middle school revised in 2007, Chinese folk songs were most, followed by Japanese, Israeli, Indonesian, and Vietnamese. The most foreigners living in Korea were Chinese, followed by

Vietnamese and Japanese.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analysis, the author designed a model for multi-cultural music class through contextual consideration based on the components of background, middleground, and foreground, and developed a teaching & learning process by applying the model to Chinese, Japanese, and Vietnamese folk songs. The purpose of the process was to explore background and middleground before musical activities to understand culture of each country such as geographical, religious, and musical characteristics and life culture and to identify content of folk songs and musical characteristics such as scale and rhythm as foreground.

Such multi-cultural music class considering the contextual factors may enable students to perceive that music of each country has contexts of various factors including lifestyle and cultural & historical backgrounds and to understand the music clearly, efficiently, and attractively, through the contextual factors rather than simple musical activities. Also, such class may help students see various cultures around music with sense of balance and develop attitude of respecting diversity of objects.